

統一新羅時代의 瓦塼研究

金 誠 龜

가, 瓦類

II, 瓦塼의 種類

을 함께 포함하여 다룰 예정이었으나 紙面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瓦當과 文樣塼을 위주로 이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 序言

統一新羅時代의 瓦塼은 각각 특색있게 전개되고 있던 三國期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盛唐文化의 외연적인 자극에 힘입어 유래없는 複合過程을 거치게 됨으로써 統一新羅직후부터 새로운 瓦塼型이 곧바로 개발되게 되어 東亞古瓦塼사상 최고의 수준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三國時代에 거의 제작되지 않고 있던 平瓦當과 裝飾瓦 및 特殊瓦, 그리고 寶相華文塼 등이 새로 출현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瓦塼의 完成時期를 맞게 되는데 그 種類가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또한 施文單位도 前代에 유행된 蓮花文에 국한되지 않고 寶相華文과 唐草文, 그리고 禽獸文 등이 다채롭게 채용되어 그 樣式的인 변화가 매우 풍부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統一新羅瓦塼은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다음부터 寺院과 宮殿 建築이 본격적으로 建立되게 되는 國家的인 造營事業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播造되어 大量生産되고 있는데, 8世紀 이후부터는 비교적 定型화된 瓦塼型이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本稿는 統一新羅時代에 제작된 瓦塼의 種類를 概觀한 다음에 圓瓦當과 平瓦當, 그리고 文樣塼을 중심으로 表識의으로 나타나고 있는 各施文單位에 따라 類型的으로 이를 다시 분류하여 그 系統을 파악함과 동시에,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樣式的인 변화와 그 特性 등에 관해서 考察한 것이다. 원래는 統一新羅全期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 裝飾 및 特殊瓦塼

統一新羅時代의 蓋瓦는 前代에 사용된 瓦型을 그대로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한편 平瓦當과 橢圓瓦當, 그리고 여러 종류의 裝飾瓦와 特殊瓦들이 새로 개발되어 매우 다양하게 製作되고 있는데, 지방에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그 모양이나 명칭이 각각 다르다.

가장 기본적인 고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木造瓦家の 지붕에 被覆되어 기왓등과 기왓골을 형성하고 있는 圓瓦와 平瓦가 있고, 이의 先端에 圓形 및 長方形의 垂板을 부착하여 蓮花文이나 唐草文, 그리고 禽獸文 등의 다양한 文樣을 새겨 처마끝에 장식한 圓瓦當과 平瓦當이 있으며, 처마가 「」자형으로 꺾이는 會檐골에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橢圓瓦當과 이와 세트가 되고 있는 會檐用平瓦當이 독자적인 瓦例로서 제작되고 있다. 또한 귀마루의 처마끝에 사용되는 隅瓦와 각마루를 築造하기 위한 板狀形의 堤瓦가 있다.

그리고 木造瓦家の 景觀과 治粧을 위하여 제작되고 있는 裝飾瓦類는 서까래의 腐蝕을 방지하기 위한 圓形과 方形의 椽木瓦가 있으며, 피수와 같은 鬼神의 顔面을 입체적으로 浮彫시키고 있는 圓頭方形의 鬼面瓦가 있고, 용마루의 兩端에 被覆되어 建物의 위용을 강조시키고 있는 大形의 鷓尾와 마루끝에 장식된 隅瓦나 鬼面瓦의 上端에 없혀져 建物의 曲線美를 강조시키고 있는 특수한 형태인 곱새瓦가 제작되고 있다.

또한 統一新羅時代에 제작된 異形의 蓋瓦인 特殊瓦類는 그 用處가 특정한 部位에 한정되어 있고 이미 보편화된 圓·平瓦나 瓦當 등의 형태를 변형시켜 제작한 것으로서, 建物內部에 세워진 단집用인 小形瓦當이 있

고, 지붕 이외의 특수한 곳에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異形의 緣釉瓦當이 있으며, 각 마무리의 기왓장 사이에 생기는 공간을 막음하기 위한 着固瓦當이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平瓦를 對角線上으로 兩分시켜 제작한 三角平瓦와 一枚의 平瓦를 縱橫으로 분할하여 제작한 四邊形의 小形瓦가 있다. 이상과 같이 統一新羅時代의 瓦類는 매우 다양한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平瓦當과 楕圓瓦當, 그리고 많은 종류의 裝飾瓦와 特殊瓦들은 統一新羅時代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대체로 文樣의 시문과 함께 화려한 建築意匠으로써 蓋瓦의 完成은 이때에 비로소 이룩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塼類

統一新羅時代에 사용된 塼은 蓋瓦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데 그 用도와 形態 그리고 장식된 文樣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統一新羅時代의 塼은 用도에 따라 建物内外의 바닥이나 基壇에 부설되는 敷塼과 建物の 壁이나 壇을 築造하기 위한 壁塼, 그리고 木塔의 下端部나 塔塔에 사용되는 塔塼 등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또한 그 形態에 따라 보편화된 方形塼과 長方形塼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異形의 特殊塼으로는 三角塼과 梯形塼, 그리고 菱形塼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三角塼은 敷塼이 斜角으로 부설될 때 側端을 막음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梯形塼과 菱形塼은 특수한 部位의 裝飾用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塼의 上面이나 顎面에 장식된 文樣의 有無에 따라 無文塼과 文樣塼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文樣塼은 다시 그 施文單位에 따라 蓮花文塼, 寶相華文塼, 鬼面文塼 등으로 세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文樣塼은 대개 敷塼이나 壁塼用으로 제작된 것이 대부분이고 塔塼에는 佛像과 佛塔 그리고 飛天 등의 또 다른 文樣이 장식되게 됨으로써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III, 圓瓦當의 樣式變遷

統一新羅時代의 圓瓦當은 그 初期에는 前代에 주류를 이루었던 蓮花文계통의 瓦型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나 高句麗와 百濟의 영향을 다시 받아 유례없는 複合過程을 거치게 됨으로써 점차 새로운 類型으로 발전되게 되며 寶相華文, 忍冬文, 그리고 禽獸文 등의 여러가지 文樣이 차례로 채용되어 매우 화려한 意匠을 보여 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圓瓦當에 시문된 文樣에 따라 그 施文內容의 다양성과 樣式的인 변화, 그리고 裝飾的인 特性 등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A, 蓮花文 圓瓦當

1, 單瓣樣式

單瓣樣式은 圓瓦當에 장식된 蓮花文이 單一蓮瓣으로 구성된 花形을 樣式的으로 분류한 것으로 이미 古新羅時代에 크게 유행되어 瓦型의 成立을 보았고 統一新羅직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瓦當型이다. 그러나 이 樣式은 7世紀後半期에 이르러 새로 등장하는 新形式의 瓦當型에 의하여 退化되어 소멸되거나, 한편으로는 새로운 類型으로 발전되게 되면서 三國期에 유행된 단순하고 소박한 본래의 花形에서 크게 벗어나 장식되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單瓣樣式을 蓮瓣의 形狀에 따라 狹瓣系, 細瓣系, 闊瓣系로 系列화시켜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類型上의 차이와 複合過程, 그리고 系統的인 特性 등을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1) 狹瓣系

蓮瓣의 길이가 길고 그 幅이 좁아서 전체적으로 狹長한 모습을 하고 있는 蓮花文으로서 瓣端이 날카롭고 瓣內에는 稜角현상①이 보이거나 稜線이 장식되고 있는 瓦當型이다. 이 狹瓣系는 古新羅時代에 이미 高

句麗의 영향을 받아 成立된 것으로 統一新羅직후까지 그 전통이 잔존하여 소수의 作例가 보이고 있는데 곧 바로 細瓣系로 移行되어 가는 過渡期的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雁鴨池의 東宮址에서 출토된 圖1은 蓮瓣의 끝이 尖形이고 그 幅이 좁아 古新羅時代에 제작된 高句麗계통의 瓦型(插圖1)을 계승하고 있으나 이미 退化되고 있는 瓦例이다. 한편 圖2는 稜角현상이 보이면서 瓣端이 反轉되고 있어서 당시에 유행되고 있는 古式闊瓣系의 영향을 받아서로 複合되고 있고 圖3은 蓮瓣이 細長한 9葉蓮花文으로서 전통적인 6~7葉의 狹瓣系가 瓣數의 증가를 초래하여 細瓣系로 移行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高仙寺址에서 출토된 圖4는 古式狹瓣系瓦當이 新形式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瓦例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9葉蓮花文으로 稜角현상이 남아 있어서 統一新羅직후에 高句麗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새로운 瓦當型으로 생각되며② 이후 花輪圈을 두른 蓮瓣의 先例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瓦型은 圖5와 같이 그 전통이 변형되어 統一新羅中葉期까지 소수의 瓦例가 계승되고 있는데 이미 細瓣化의 過程을 거치고 난 다음의 또 다른 狹瓣系로서 제작된 것에 불과하다.

(2) 細瓣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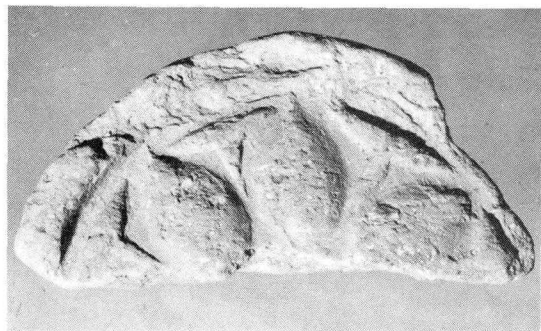
蓮瓣의 길이가 길고 그 幅이 매우 좁아 細長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瓣數가 10葉이상으로 分化된 것이다. 前述한 바와같이 細瓣系는 狹瓣系에서 瓣數가 증가되면서 統一新羅직후에 본격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類型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細瓣化현상은 당시에 유행된 闊瓣系에까지 파급되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16葉이상의 본격적인 新形式의 細瓣系를 출현시켜 蓮瓣자체가 菊瓣狀으로 변화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圖6은 細長한 蓮瓣에 稜角현상이 뚜렷하며 瓣端이 날카로운 10葉蓮花文의 古式細瓣系瓦當으로 平壤에서 출토된 高句麗瓦當(插圖2)의 영향을 받아 統一新羅직후에 제작된 새로운 瓦型으로 간주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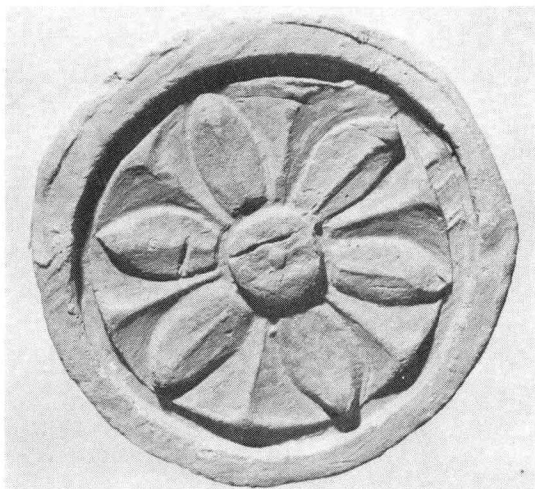
데③, 稜角자체가 稜線으로 대체되면서 四天王寺址에서 출토된 圖7과 같은 12葉의 細瓣系를 출현시키게 된다. 그런데 圖8은 瓣中이 약간 內曲된 상태에서 그 끝이 웅기된 채 砧杵形의 꽃술子葉이 장식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稜角현상이나 稜線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周緣部에 珠文이 장식되고 있는 新形式의 細瓣系는 蓮邊에 花輪圈을 배치한 것(圖9), 瓣肉자체가 浮彫되고 子房의 측에 꽃술帶를 배치(圖10)하거나 瓣肉자체가 內曲된 것(圖11) 등으로 세분되고 있는데 間瓣이나 花形자체가 변형되어 전통적인 古式瓦型에서 벗어나 菊瓣狀으로 점차 圖式化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闊瓣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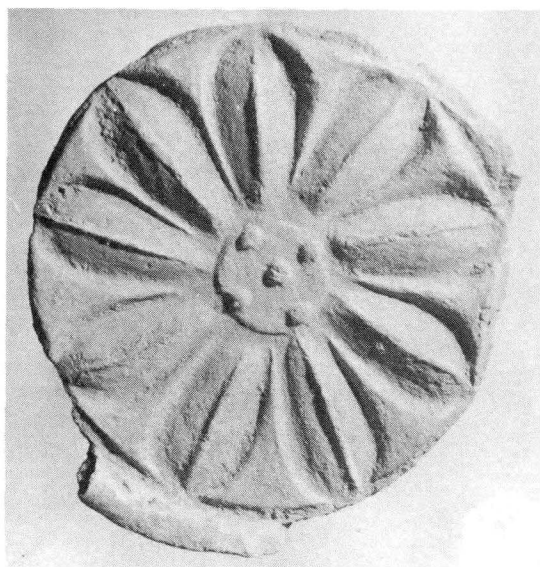
蓮瓣의 길이가 짧고 그 幅이 비교적 넓은 6葉과 8葉의 短葉曠幅한 單瓣蓮花文을 계통적으로 분류한 것으로 古式과 新形式의 瓦當型으로 구분되고 있다. 古式闊瓣系는 統一新羅직후의 짧은 기간동안에 사용된 古式單瓣樣式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주류를 이루었던 瓦當型으로 三國期에 유행된 전통적인 瓦型을 계승한 것과 統一新羅직후에 출현한 새로운 類型으로 세분되고 있는데 그 成立過程에 있어서 3계통으로 분류되고 있다.④ 첫째, 百濟瓦當型의 도입을 들 수 있다. 圖12는 瓣端이 경미하게 反轉되고 있는 百濟계통의 素文單瓣型으로 統一新羅직후에 造營된 東宮의 創建瓦當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百濟가 멸망한 이후에 百濟系의 瓦工이 新羅로 移住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둘째는, 古新羅의 人瓦當型의 계승성이다. 圖13과 14는 모두 6葉單瓣樣式으로 瓣內에 稜線이 사문된 채 瓣端이 反轉되거나 半圓形으로 曲面처리되고 있는데 이미 古新羅時代에 成立된 新羅의 瓦當型으로 대표되고 있는 瓦例로서 統一新羅직후에 조영된 雁鴨池의 東宮址나 四天王寺址에서 많은 수량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古新羅的인 瓦當型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새로운 瓦當型의 개발을 들 수 있다. 三國時代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瓦當型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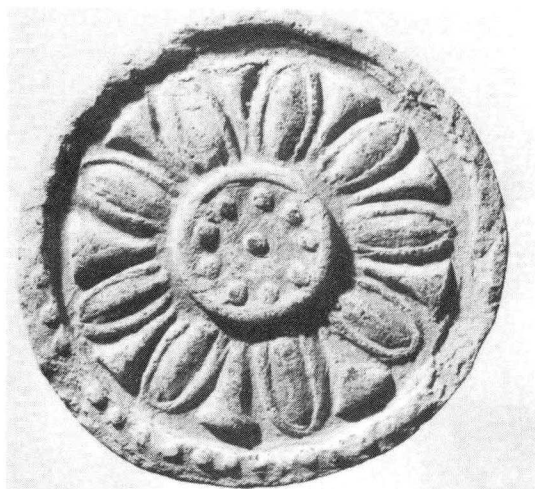
1. 雁鴨池東宮



2. 毛良里



3.



4. 高仙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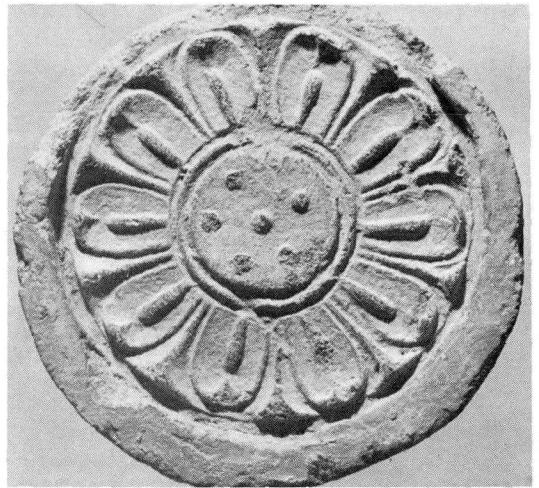
5. 皇龍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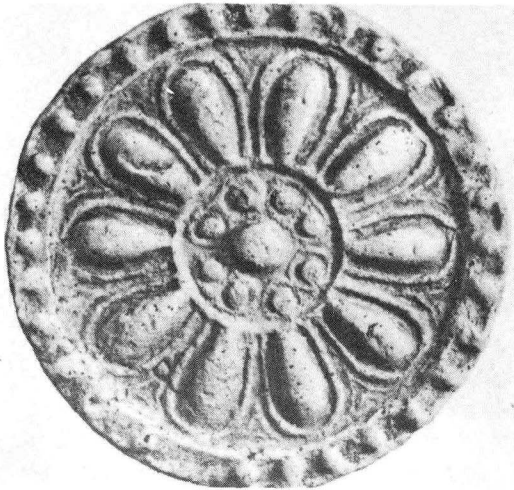
6.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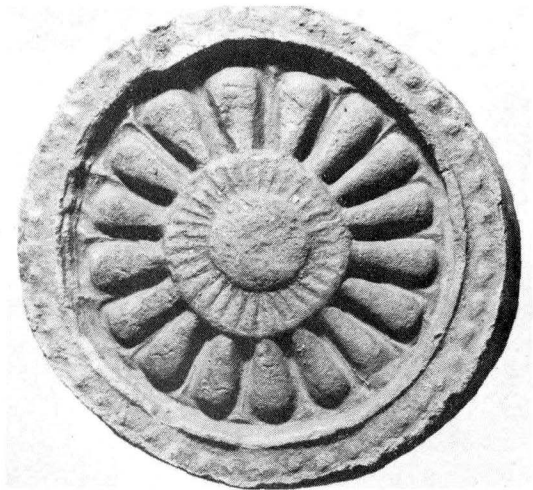
7. 四天王寺



8. 靈廟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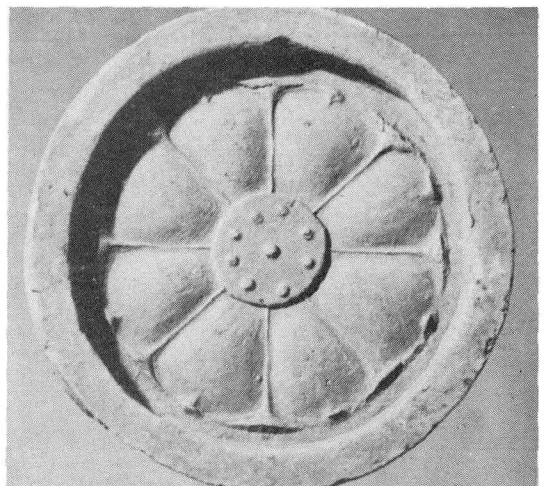
9. 雁鴨池東宮



10. 興輪寺



11. 皇龍寺



12. 雁鴨池東宮

蓮瓣이 內曲되어 間瓣이 Y字形으로 변형된 것(圖 15)、蓮瓣內에 瓣形子葉이 浮彫되고 있는 것(圖 16)、또는 忍冬文字子葉이나 꽃술子葉이 瓣內에 장식된 것(圖 17、18) 등으로 모두 統一新羅직후에 폭넓게 야기되고 있는 複合過程의 所産物로서 제작된 瓦例인데 곧바로 新形式으로 전환되게 된다.

그런데 新形式의 闊瓣系는 古式과 비교해볼 때 瓣數의 변화는 거의 없으나 周緣部에 주문이 장식되거나 子葉이 배치되고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고 있다. 圖 19는 統一新羅직후에 새로 개발된 古式瓦當型(圖 15)을 곧바로 新形式瓦當型으로 전환시킨 瓦例로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圖 20과 21은 瓣內에 忍冬文과 花葉文의 子葉을 정교하게 시문시키고 있고 顎面에도 唐草文과 4葉의 複瓣花文을 배치시키고 있는데, 크게 유행되지 못하고 당시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重瓣樣式으로 흡수되어 統一新羅의 독자적인 瓦當型으로 정착되게 되면서 더욱더 화려한 장식성을 극대화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複瓣樣式

複瓣樣式은 瓣面중앙에 縱으로 형성된 稜線이나 稜角에 의하여 蓮瓣이 좌우로 兩分된 상태에서 각각 同一한 子葉을 장식하고 있는 瓦當型이다. 그러나 蓮瓣이 兩分되었다고 해서 2葉의 蓮瓣으로 分瓣된 것이 아니라 花形 자체는 어디까지나 單一蓮瓣으로써 瓣面에 장식된 子葉이 複數라는 기준에서 單瓣蓮花文과 구분시키고 있다. 따라서 複瓣樣式은 子葉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① 꽃술子葉形

꽃술子葉이 시문된 複瓣樣式은 瓣面이 볼록한 상태에서 稜線이 시문된 채 反轉되고 있는 古式(圖 22)과 瓣面이 內曲된 상태에서 稜角이 형성되고 있는 新形式(圖 23、24)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古式은 統一新羅직후에 제작된 過渡期의 産物로서 子房이 半球狀으로 융기되어 있고 新形式은 古新羅時代에 제작된 瓦當型(插圖 3)을 계승하여 定型화시킨

것으로 子房주위에 珠文圈이나 꽃술帶가 첨가되면서 점차 장식화되고 있다.

② 瓣形子葉形

蓮邊이 花輪圈으로 형성되어 있고 瓣面은 瓣肉자체가 稜線에 의하여 複數로 분할되고 있는 瓦當型으로 子房의 측에 꽃술帶를 배치하거나 그 內部에 寶相華文이 장식되면서 周緣部에도 4葉花文과 寶相華唐草文이 화려하게 배치되고 있는 新形式으로서 8世紀中葉期에 유행된 화려한 瓦當型이다(圖 25、26)

③ 忍冬文字葉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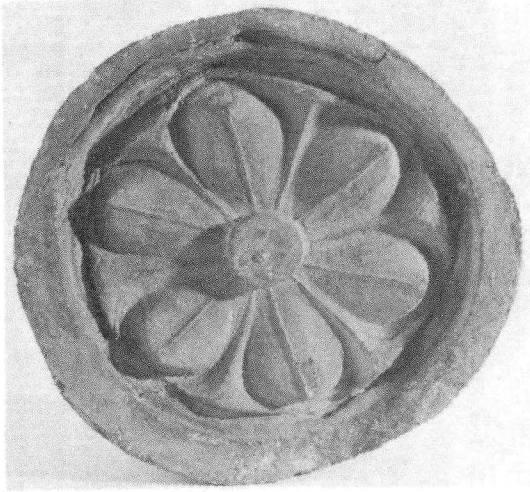
瓣中이 볼록한 상태에서 忍冬文複子葉이 시문된 채 反轉되고 있는 7葉의 複瓣樣式으로 子房이나 周緣部에 이질적인 문양이 배치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圖 27은 周緣部에 古式唐草文이 새겨진 동시에 平面形의 子房에는 4葉忍冬文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唐草文과 忍冬文、그리고 蓮花文이 함께 組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소수에 불과하다.

3、重瓣樣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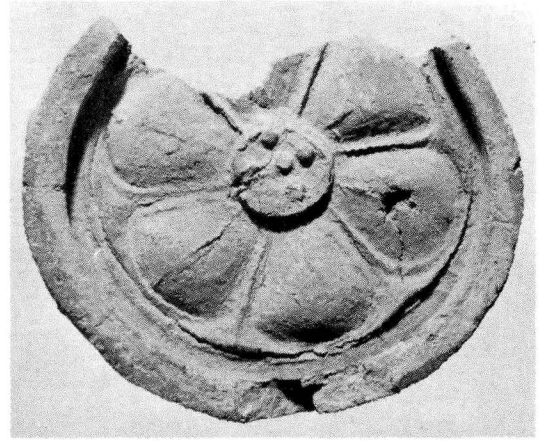
重瓣樣式은 2葉의 蓮瓣이 縱方面으로 겹쳐져 없혀지거나 또는 엇갈리면서 2重으로 구성되어 內瓣과 外瓣으로 구분되고 있는 일종의 重疊形으로서 蓮瓣의 장식성을 극대화시킨 統一新羅時代에 가장 성행한 독자적인 瓦當型이라고 할 수 있다. 이 樣式은 插圖 4와 같이 그 成立過程에 있어서 高句麗계통의 瓦型에 자극되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⑤ 統一新羅全期를 통하여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고 형식적인 변화도 매우 풍부하여 간단하게 규명할 수가 없으나 다음과 같이 內外瓣의 樣式변천에 따라 몇가지 類型으로 구분된다.

① 單·單葉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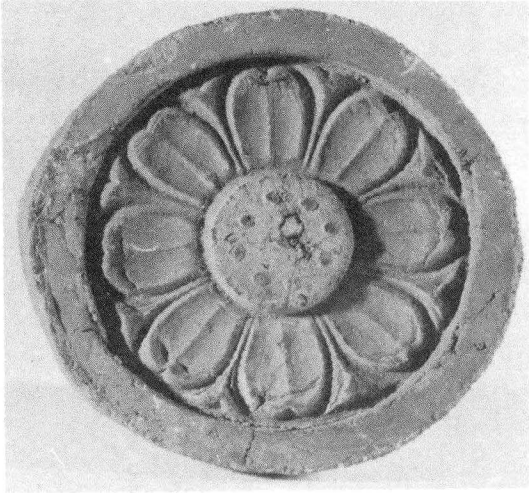
內外側의 蓮花文 즉 內瓣과 外瓣이 모두 單瓣型을 형성하고 있는 瓦例로써 內外瓣이 겹쳐져 없혀진 單·單葉形은 圖 28을 들 수 있는데 子房의 측에 꽃술帶와 珠文을 배치하고 花輪圈이 형성된 闊瓣系蓮瓣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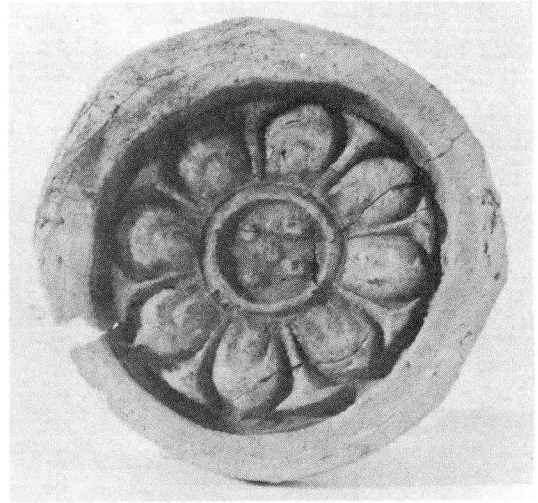
13.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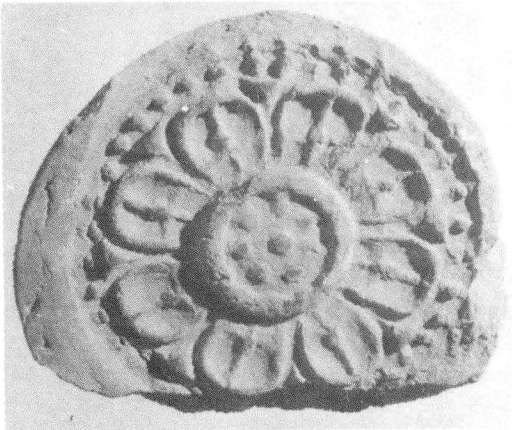
14. 四天王寺



15.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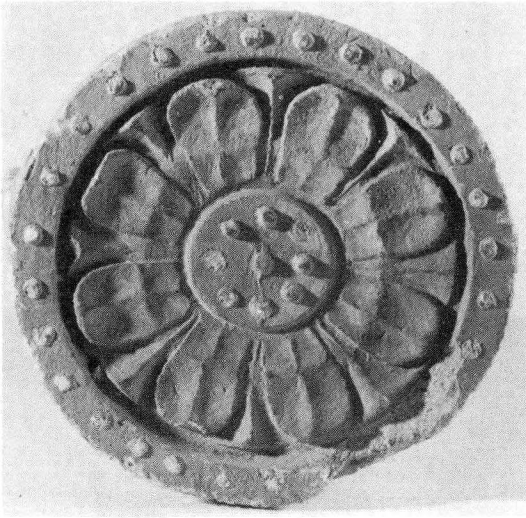
16. 雁鴨池東宮



17. 雁鴨池東宮



18.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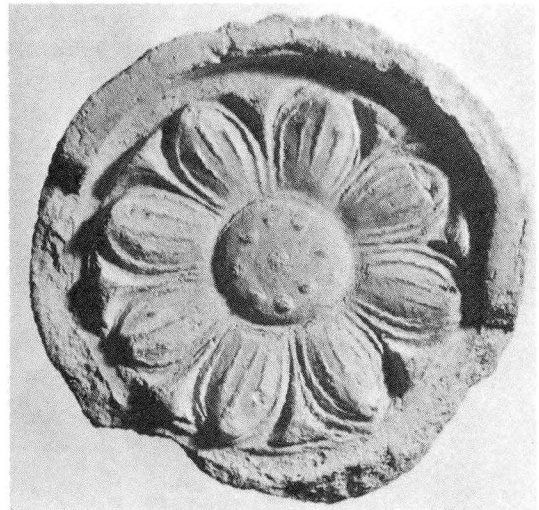
19. 雁鴨池東宮



20. 皇龍寺



21. 仁旺里廢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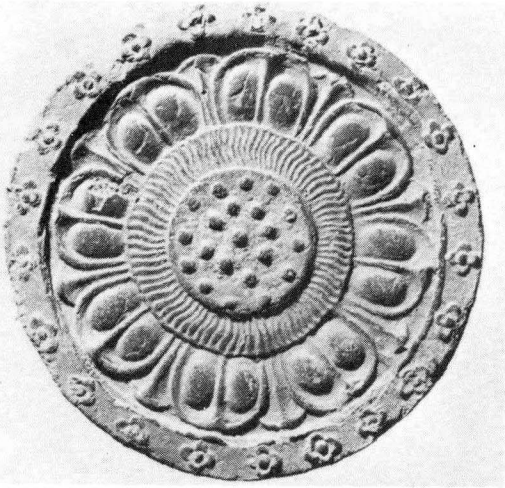
22.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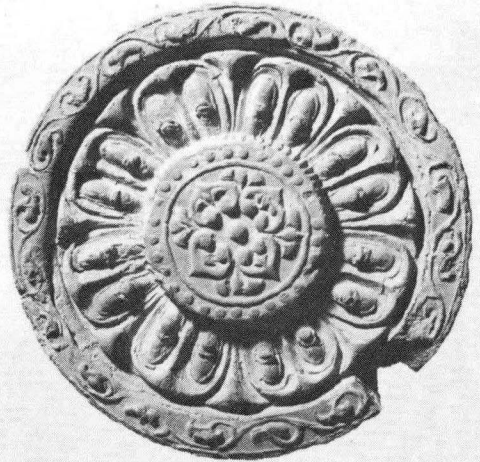
23.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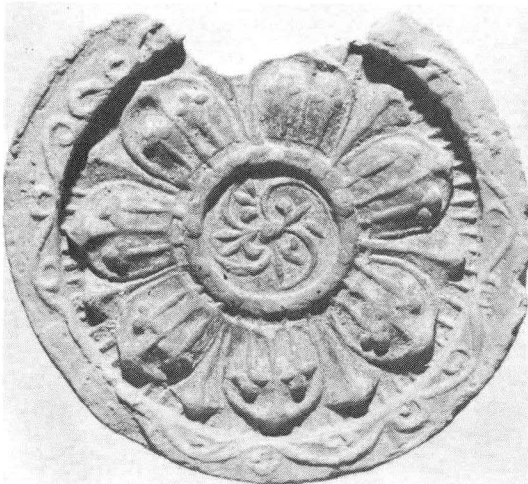
24. 四天王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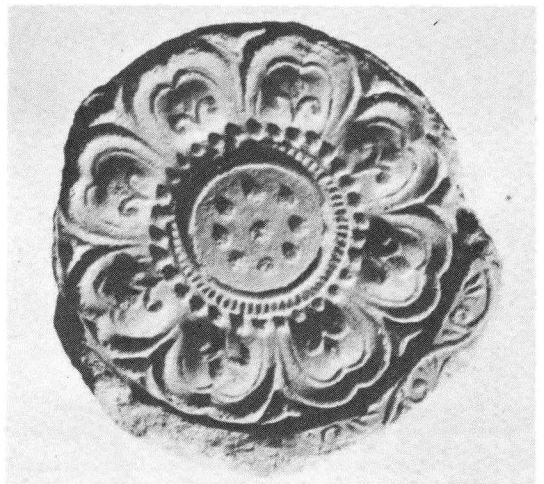
25. 雁鴨池東宮



26. 수막새



27. 수막새



28. 수막새

첩되어 있다.

그리고 內外瓣이 서로 엇갈려 있는 單·單葉形은 外瓣사이 에 內瓣을 어떤 구획없이 배치시킨것(圖 29, 30)과 內外瓣을 圓圈과 珠文圈으로 분리시킨것(圖 31, 32)등으로 다시 세분되고 있는데 前者는 忍冬文이나 瓣形子葉이 각각 장식되면서 그 瓣數가 증가되어 점차 細瓣化되고 있으며, 後者는 蓮瓣이 菊瓣狀으로 圖式化된 상태에서 子房이 축소되어 전혀 다른 意匠으로 변형되고 있는 瓦當型이다.

② 單·複葉形

內側의 蓮花文이 單瓣型이고 外側의 蓮花文이 複瓣型인 重瓣樣式으로 內外瓣을 珠文圈과 圓圈으로 구획시키고 있다. 圖 33은 雁鴨池의 東宮址에서 출토된 古式瓦當으로 꽃술子葉을 장식한 11葉의 蓮瓣이 珠文圈으로 구획되고 있는데 統一新羅직후에 제작된 古式瓦當으로 新形式의 先例로써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圖 34는 外瓣에 瓣形子葉이 시문된 瓦例로서 內瓣과 圓圈으로 구획되고 있는데 內瓣이 細長한 細瓣系로 치밀하게 배치되고 있어서 또 다른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③ 複·單葉形

內外瓣이 각각 複瓣과 單瓣型으로 구성된 瓦當型으로 구획이 없어서 엇갈리는 경우와 圓圈으로 구분시키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구획이 없�서로 엇갈리고 있는 瓦當型은 圖 35와 36을 들 수 있는데 圖 35는 外瓣이 內曲된 素文單瓣型이나 內瓣은 瓣形複子葉이 시문되어 있고, 圖 36은 꽃술子葉과 忍冬文子葉이 內外瓣에 각각 배치되어 화려한 意匠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圓圈으로 內外瓣을 구분시키고 있는 圖 37은 圖 36과 같이 꽃술子葉과 忍冬文子葉을 각각 장식하고 있으나 그 瓣數가 12葉으로 증가되어 더욱 장식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複·複葉形

內外瓣이 모두 複瓣型으로 구성되고 있는 瓦當型으로 前述한 複·單葉形과 같이 서로 겹쳐져 엇혀진 경우와 엇갈리고 있는 두 경우가 있다. 內外瓣이 엇혀지고 있는 圖 38은 二條의 花輪圈을 두르고 瓣形複子葉이

장식되고 있는 보기 드문 5葉의 重瓣樣式으로 중요시 되고 있으며, 圖 39는 엇갈리고 있는 內外瓣에 꽃술및 忍冬文複子葉이 각각 배치되고 周緣部에는 유려한 唐草文이 시문되고 있는 화려한 瓦當型이다. 그런데 이외에도 忍冬文複子葉이 內外瓣에 각각 배치되고 있는 瓦例도 확인되고 있어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單·重葉形

內外瓣에 瓣形子葉이 모두 시문되고 있는 가운데 內瓣은 單瓣型이나 外瓣은 2條의 蓮瓣이 엇혀져 중첩되고 있는 瓦當型으로 統一新羅中葉期에 가장 성행한 菊瓣狀의 重瓣樣式이다. 圖 40은 子房이 圓圈珠文式으로 略化되어 있고 蓮瓣은 細瓣化되고 있는데, 圖 41은 內外瓣이 2條의 圓圈으로 구획되고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重瓣樣式은 統一新羅中葉期에 이르러 가장 성행한 독자적인 樣式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前述한 單瓣및 複瓣樣式이 모두 흡수되어 內外瓣에 각각 시문되게 되면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子葉의 형태도 다채롭게 변형되어 蓮花文이 더욱 장식화하게 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樣式이라고 할 수 있다.

4. 三重瓣樣式

三重瓣樣式은 蓮瓣이 3점으로 엇갈려 배치되고 있는 보기 드문 瓦當型으로서 重瓣樣式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圖 42는 16葉의 單瓣蓮花文이 素文인 채 內曲되어 3점으로 엇갈려 장식되어 있고, 圖 43은 重·單葉形의 蓮瓣이 서로 다르게 엇갈려 배치되고 있는데 前述한 重瓣樣式을 더욱 다양화시킨 새로운 類型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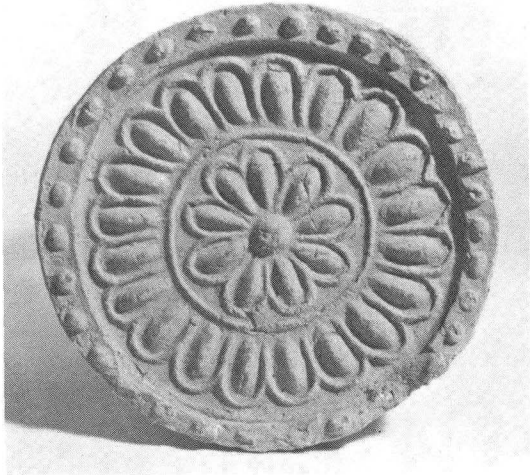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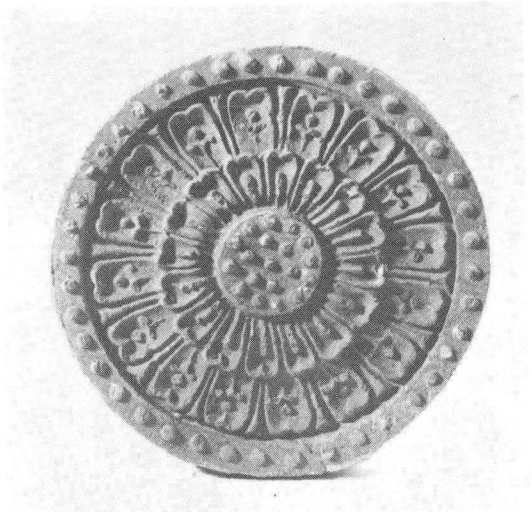
B. 寶相華文圓瓦當

1. 單瓣樣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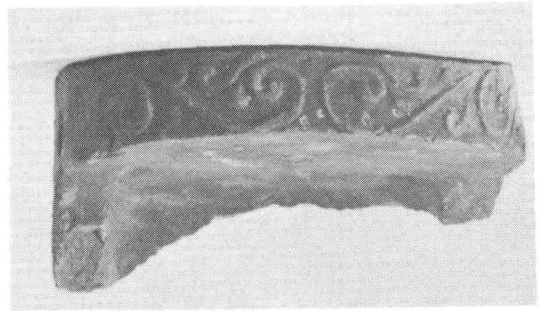
寶相華文은 寶相華文傳의 출현에 자극되어 統一新羅직후부터 圓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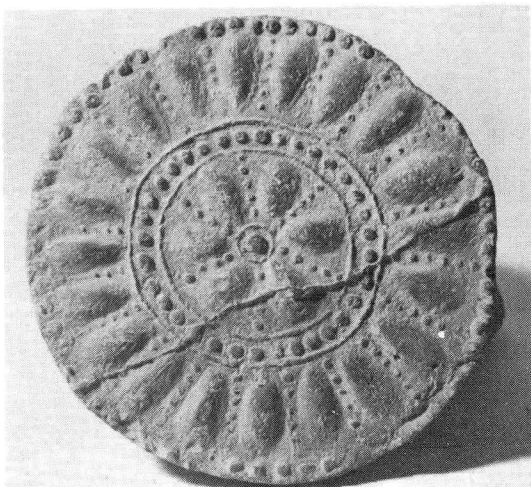
29.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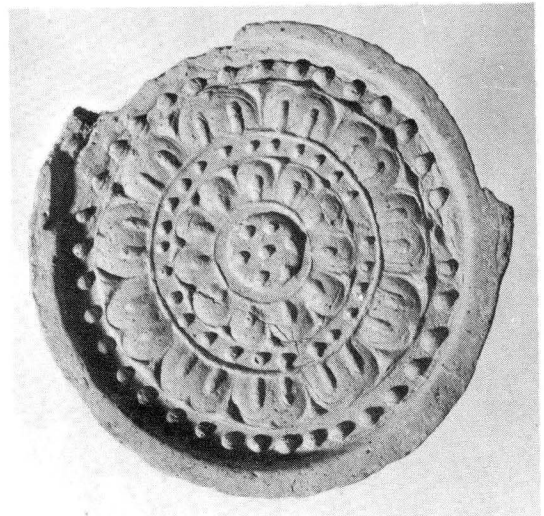
31. 皇龍寺



30. 雁鴨池東宮



32. 수막새



33.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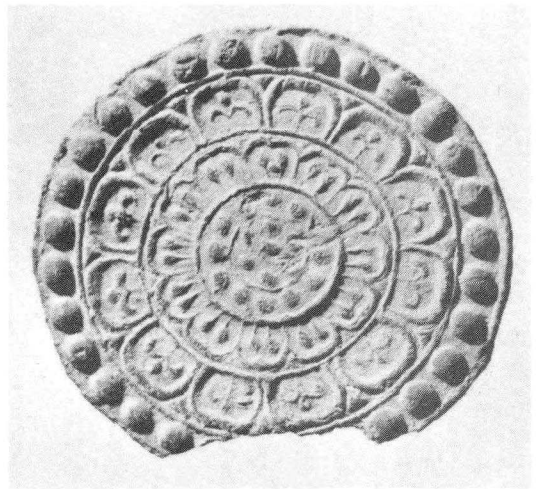
34. 雁鴨池東宮



35. 雁鴨池東宮



36. 皇龍寺



37. 毛良里



38. 수막새



39. 皇龍寺

의 주요한 施文單位로 곧 바로 채용되게 되는데 전통적인 蓮花文계통의 瓦文樣을 크게 변형시키면서 統一新羅의 全期를 통하여 매우 다양하게 장식되고 있다.

寶相華文의 單瓣樣式은 4葉形(圖 44)、6葉形(圖 45)、8葉形(圖 46)의 3形式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瓣內장식인 子葉이나 間瓣은 寶相華의 枝葉이거나 忍冬文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單瓣樣式은 子房의 측에 珠文圈이나 꽃줄帶를 실장하거나 그 內部에 4葉花文이 장식되게 되면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後述하는 混瓣樣式으로 점차 전환되어 蓮花文이나 唐草文등과 組合되게 됨으로써 더욱더 성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重瓣樣式

8葉의 寶相華文이 重瓣蓮花文의 영향을 받아 엇갈리게 증첩되고 있는 瓦當型으로 一例가 확인되고 있다(圖 47)、寶相華의 花形자체가 細線圈으로 형성되어 있고 周緣部에는 寶相華文의 枝葉이 치밀하게 배치되고 이의 顎面에도 花葉文이 별도로 장식되어 매우 화려하게 意匠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退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混瓣樣式

寶相華文이 주로 外瓣으로 장식된 채 그 內瓣은 蓮花文과 忍冬文、그리고 變形花文등이 시문되고 있는 일종의 重瓣型으로서 그 施文單位로서로 다르게 複合되고 있기 때문에 混瓣樣式으로 분류시킨 瓦當型이다. 寶相華文이 蓮花文과 複合되어 混瓣을 이루고 있는 瓦當型은 統一新羅時代에 매우 성행한 意匠으로서 대개 複瓣蓮花文과 組合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圖 48은 素文單瓣蓮花文과 混瓣을 이루고 있는 瓦例이나 圖 49와 50은 複瓣蓮花文과 寶相華文이 複合되고 있는 매우 화려한 瓦當型으로서 內外瓣을 엇갈리게 배치하거나 圓圈으로 구획시키는 卍形式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混瓣樣式은 점차 周緣部에 唐草文이나

花文등이 장식되고 子房에 4葉花文이 첨가되면서 장식성이 극대화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寶相華文과 忍冬文이 複合된 瓦當型은 圖 51을 들 수 있는데 圓圈으로 內外瓣을 구획시키고 있으며 忍冬文은 그 瓣根이 8角圈으로 連接되어 매우 독특한 形狀을 이루고 있다. 또한 圖 52는 擴幅한 4葉 寶相華文이 8葉의 變形花文과 混瓣을 이루고 있고, 圖 53은 分切된 唐草文이 外瓣으로, 寶相華文이 內瓣으로 각각 배치되고 있는 특수한 瓦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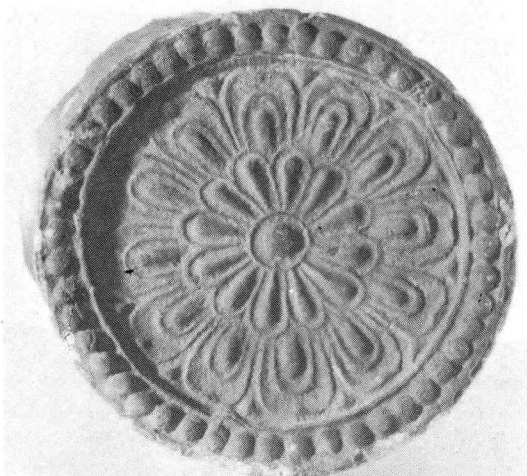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寶相華文은 그 자체가 分化되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은 물론 蓮花文과 忍冬文、그리고 變形花文등과 서로 複合되어 새로운 花形을 구성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後述하는 바와같이 迦陵頻伽文이나 獅子文등의 動物文과도 組合되어 統一新羅의 瓦文樣에 크나큰 변형을 초래시켰다고 할 수 있다.

C、寶相華唐草文圓瓦當

寶相華唐草文이 장식된 統一新羅時代의 圓瓦當은 그 作例가 소수에 불과하다. 원래 寶相華唐草文은 唐草文의 枝葉끝에 寶相華葉이 組合되어 형성된 것으로 統一新羅時代에 가장 유행된 平瓦當의 주요한 文樣으로 장식된 것인데 圓瓦當에 채용되고 있어서 異例적이다. 형식상 단독으로 배치된 것과 蓮花文과 複合되어 장식된 2式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圖 54는 主葉이 계속 닳아 지면서 그 枝葉은 反轉되고 있는데, 圖 55는 2條의 寶相華唐草文이 下端에서 上端으로 분기되어 굴절하면서 內側의 重瓣蓮花文과 圓圈으로 구획되어 複合되고 있다.

D、瑞鳥文圓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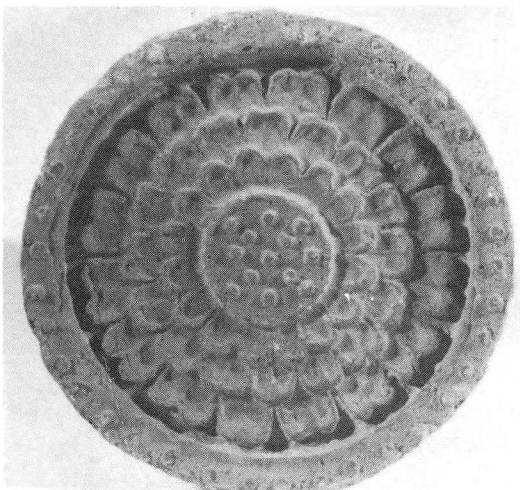
統一新羅時代의 圓瓦當에 彫飾된 瑞鳥는 迦陵頻伽를 비롯하여 大鵬、鳳凰、鷲鳥、그리고 鴻雁形등으로 추정되는 여러 종류의 鳥文들이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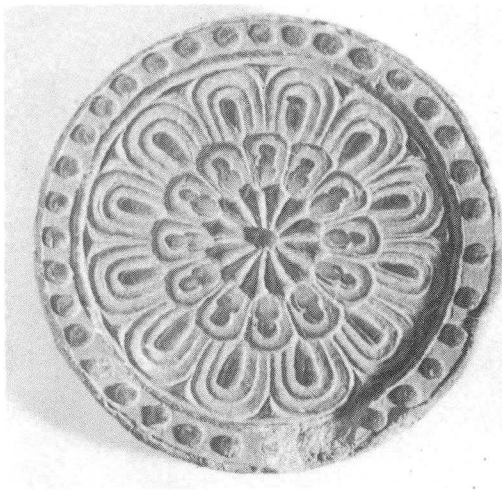
40.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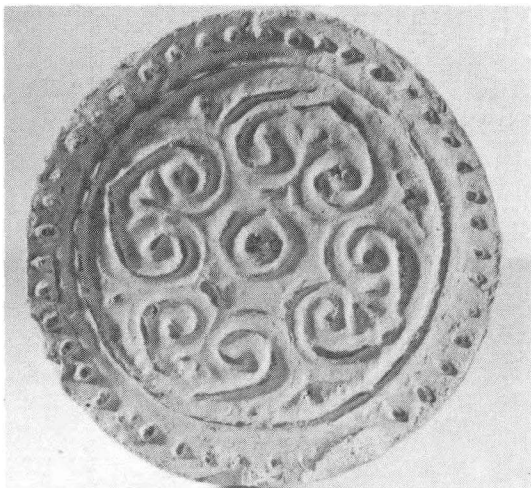
41. 雁鴨池東宮



42.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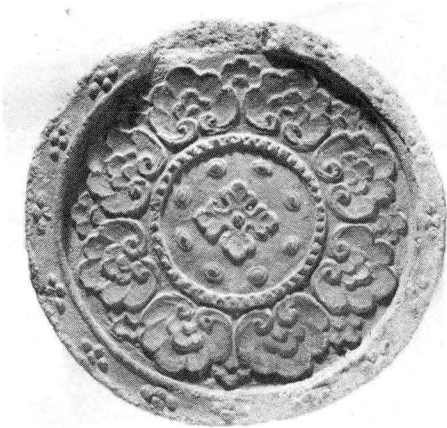
43.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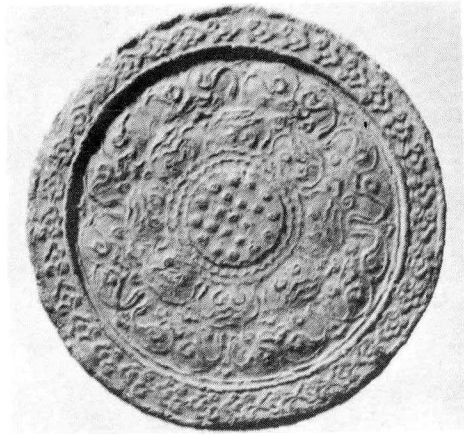
44.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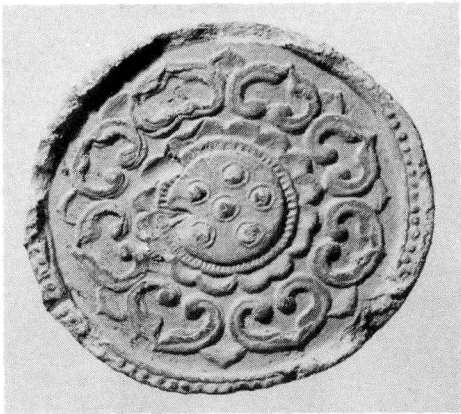
45. 雁鴨池東宮



46. 수막새



47. 佛國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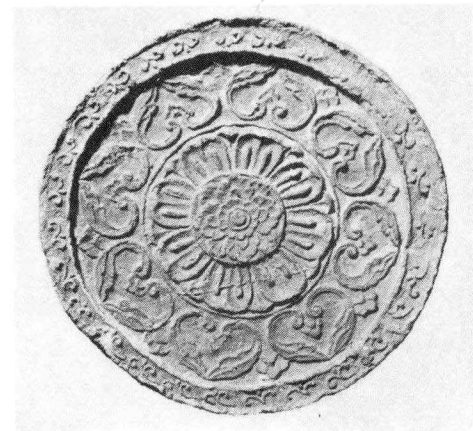
48. 雁鴨池東宮



49. 수막새



51. 雁鴨池東宮



50. 수막새

하게 具現되고 있는데 單軀의 鳥形을 배치한 單鳥樣式과 雙軀의 鳥形을 배치한 雙鳥樣式으로 구분되고 있다.

單鳥樣式 가운데 迦陵頻伽文은 極樂淨土에 살고 있다는 상상의 새로서 佛經에 기록되고 있는 仙鳥인데, 그 모습이 人面鳥身狀으로 具現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圖 56은 雲文이 시문된 가운데 蓮花臺座 위에 正面觀으로 묘사되고 있고, 圖 57은 側面觀으로 彫飾된 채 複瓣蓮花文과 組合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單鳳形인 圖 58은 瓦當面을 圓圈으로 구획시킨 후 外區에는 變形花文을 시문하고 內區에는 兩翼을 펼친 單鳳을 花葉위에 독특하게 장식하고 있다.

雙鳥樣式은 鳳鳳形과 鸞鳥形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鳳鳳形(圖 59, 60)은 左右同形의 鳥文이 花枝와 樹木을 중심으로 서로 부리를 맞댄 對見의 형상으로 彫飾되고 있으며 上下部에 장식된 花瓣이 圓形으로 花圈을 형성하고 있어서 꽃과 새가 아름답게 조합되고 있다. 그리고 鸞鳥形(圖 61)은 前述한 鳳鳳形과 달리 雙鳥를 특수하게 並行시키고 있는 새로운 意匠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瑞鳥文은 상상의 鳥形을 특수하게 彫飾한 것으로 吉祥을 위한 상징적인 意味로써 瓦當에 장식된 것으로 생 각된다.

E、獅子文圓瓦當

圓瓦當에 장식되고 있는 獅子文은 立像과 座像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立像의 경우는 兩翼을 부착하고 있어서 매우 주목되고 있다. 圖 62는 兩翼을 펼치고 다리를 힘차게 내 뻗고 있는 有翼獅子像을 浮彫시키고 있는데 周緣部에는 變形雲文이 시문되어 있고, 圖 63은 瓦當面을 珠文圈으로 구획시켜 外側에는 8葉寶相華文을 장식하고 있고 그 內側에는 座像의 獅子를 정교하게 彫飾하고 있는데 매우 강경한 手法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獅子像은 後述하는 鬼面文과 같이 辟邪의 상징으로 瓦當에 장식된 주요한 文樣이라고 할 수 있다.

F、鬼面 및 人面文圓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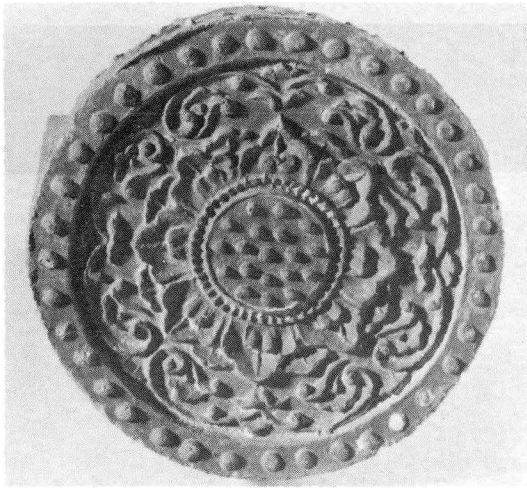
과수와 같은 鬼神의 顔面을 무섭게 意匠시키고 있는 鬼面文은 마루 끝에 부착된 圓頭方形인 鬼面瓦의 주요한 施文單位로 統一新羅時代부터 매우 성행하게 되는데, 鬼面文이 圓瓦當에 장식되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圖 64는 양미간에 火焰寶珠를 배치하고 길게 찢겨진 口部에는 齒牙가 날카롭게 意匠되고 있는 초기적인 鬼面狀이라고 할 수 있으며, 圖 65는 珠文圈으로 瓦當面을 2분시키고 龜甲文과 鬼面文을 각각 彫飾하고 있어서 매우 異彩롭다.

그런데 統一新羅時代의 瓦當文으로서 매우 희귀한 人面文이 있다. 圖 66은 上端部가 破失되고 있지만 周緣部에 珠文이 배치되고 있는 統一新羅時代의 圓瓦當으로써 그 내부에 혀를 내밀고 있는 人面狀이 浮彫되고 있어서 매우 주목되고 있다. 插圖 5에서와 같이 靈廟寺址에서 출토된 古新羅時代의 人面文圓瓦當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鬼面文이나 獅子文과 같이 辟邪의 상징으로 意匠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統一新羅時代의 圓瓦當은 蓮花文과 寶相華文, 그리고 禽獸文 등이 다채롭게 시문되어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외에도 變形花文이라든가 佛像形과 같은 特殊文樣(圖 67)이 장식되기도 하고 또한 「在城」銘이 새겨진 銘文瓦當(圖 68)이 출토되고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변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平瓦當의 樣式變遷

平瓦當은 統一新羅 직후에 雙鹿寶相華文塼과 동시에 제작된 새로운 瓦當型으로써 圓瓦當과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 前代의 端平瓦대신에 처마 끝에 장식되고 있는 扁圓瓦類이다. 초기에는 그 上下幅이 平瓦의 두께와 거의 同一하여 서로 接合될 때 瓦當의 顎面이 별도로 突出되지 않고 平瓦와 一直線으로 부착되고 있는 無顎式平瓦當으로 제작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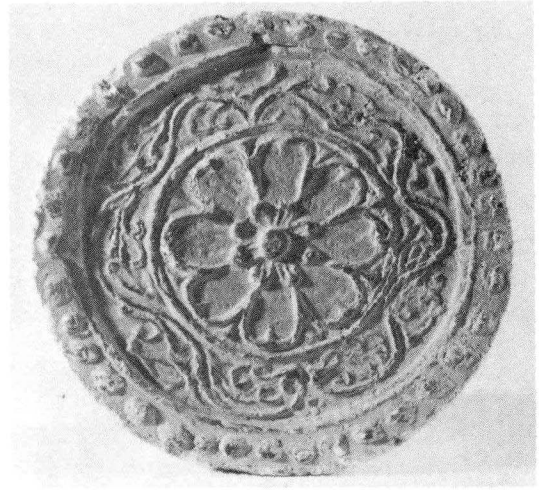
52. 雁鴨池東宮



53. 普門寺



54. 수막새



55. 雁鴨池東宮



56. 수막새



57. 雁鴨池東宮



58. 靈廟寺



59. 雁鴨池東宮



60. 感恩寺



61. 雁鴨池東宮



62. 수막새



63.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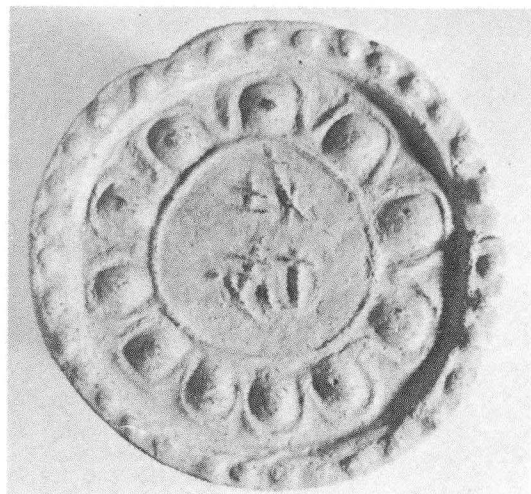
64. 四天王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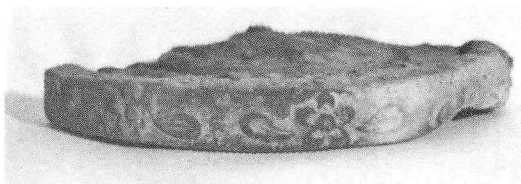
65. 수막새



66. 수막새



68. 月城



67.

으나, 점차 그 上下幅이 증가되면서 直角으로 接合되게 되는 有頸式平瓦當으로 전환되게 된다. 그런데 無頸式平瓦當의 始源樣式으로 간주되고 있는 端平瓦가 漢江北岸의 阿且山城(插圖 6)과 扶餘의 軍守里寺址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平瓦當의 成立過程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⑥ 그리고 平瓦當은 弧形을 이룬 狹幅한 長方形의 공간성때문에 甍窟돌을 意匠化시킨 唐草文이 초기부터 주체적인 文樣으로 장식되고 있는데 辟邪와 吉祥을 위한 禽獸文들이 주요한 文樣으로 다시 채용되면서 더욱더 다양하게 변천되고 있다.

A、唐草文平瓦當

唐草文은 蔓草와 같은 甍窟돌이 뻗어 나가는 모습을 意匠化시킨 것으로 主葉은 계속 굴절되고 枝葉은 派生하여 反轉되고 있는 형상인데, 樣式的으로 主葉이 左右端에서 각각 中心을 향하여 甍窟지고 있는 內向對稱形과 主葉이 中心에서 左右端을 향하여 뻗어 나가는 外向對稱形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외에도 主葉이 一端에서 他端으로 계속 굴절되고 있는 偏行形이 있으나 소수예에 불과하다. 그런데 唐草文은 그 枝葉끝에 忍冬이나 寶相華, 그리고 葡萄等과 組合되어 새로운 類型으로 변형되면서 더욱더 장식화되고 있다.

1、古式唐草文系

古式唐草文은 枝葉끝에 忍冬이나 寶相華와 같은 副文이 組合되지 않고 있는 단순한 형태의 초기적인 文樣으로서 統一新羅직후부터 平瓦當에 시분되고 있다. 圖 69는 雁鴨池의 東宮址에서 출토된 無頸式平瓦當으로 流麗한 古式唐草文이 內向對稱形으로 장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瓦當型은 三國期の 發見例가 전혀 없는 최초의 平瓦當으로서 統一新羅직후인 7世紀後半期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⑦ 그런데 圖 70은 瓦當의 背面에 平瓦가 直角으로 접합되어 頸面이 별도로 돌출되고 있는 有頸式平瓦當으로 唐草文이 外向對稱形으로 배치되고 周緣部에 珠文이

장식되는 등 본격적인 平瓦當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忍冬唐草文系

古式唐草文의 枝葉사이에 짧게 對生된 忍冬草가 組合된 것으로 內向對稱形과 外向對稱形으로 구분되고 있다. 圖 71은 無頸式平瓦當으로서 忍冬唐草文의 主葉이 左右端에서 中心을 향하여 굴절되고 있는 초기적인 瓦例이며, 圖 72는 周緣部에 珠文이 장식되어 있고 頸面이 형성되고 있는 有頸式平瓦當으로 그 頸面에 流麗한 寶相華唐草文이 시분되어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圖 73은 中心飾으로 忍冬文이 장식되고 있는 外向對稱形으로서 周緣部가 突出되어 珠文이 시분되고 있다.

3、寶相華唐草文系

唐草文의 枝葉끝에 寶相華文이나 寶相華의 小葉이 부착되고 있는 새로운 花形으로서 統一新羅時代에 가장 성행된 類型이다. 寶相華唐草文은 西紀 六八〇년에 제작된 「調露二年……」銘 雙鹿寶相華文塚의 頸文으로 統一新羅직후에 곧바로 출현하게 되는데, 平瓦當의 주요한 文樣으로 채용된 時期는 8世紀前後부터라고 할 수 있다. 圖 74는 內向對稱形의 寶相華唐草文을 장식하고 있는데 圖 75와 76은 外向對稱形으로 意匠되고 있어서 樣式的으로서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圖 74와 76의 경우는 頸面에까지 유려한 寶相華唐草文이 시분되고 있어서 더욱더 장식화되고 있다.

4、葡萄唐草文系

唐草文의 枝葉끝에 포도송이와 花葉을 함께 組合시키고 있는 화려한 裝飾意匠으로서 統一新羅中葉期에 성행한 瓦當型이다. 圖 77은 돌출된 周緣部에 小粒珠文을 치밀하게 배치한 상태에서 主葉이 左右端에서 中心을 향하여 굴절되고 있는 內向對稱形으로 장식되고 있는데 枝葉끝에 부착된 포도송이는 사실적인 手法으로 묘사되고 있다.



69.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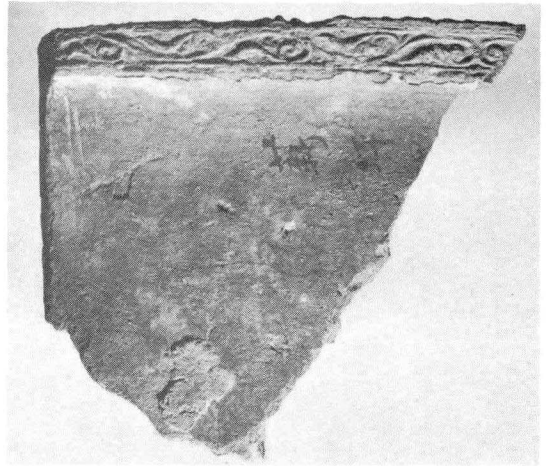
70. 皇龍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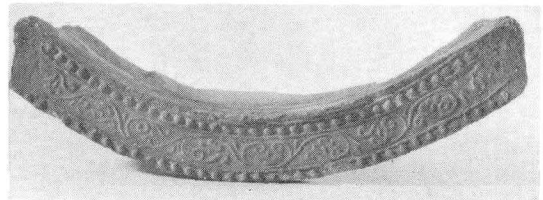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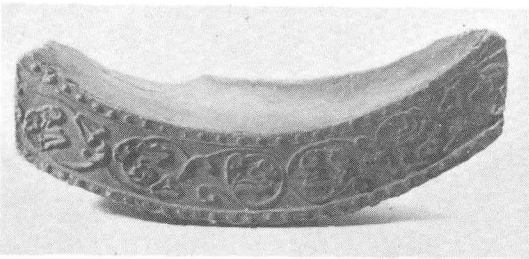
71. 皇龍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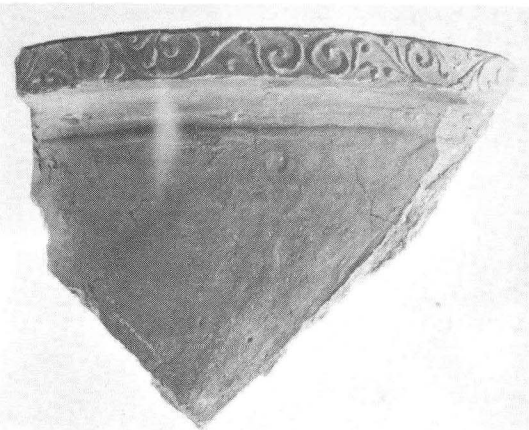
73. 雁鴨池東宮



72. 薪坪里



75. 雁鴨池東宮



74. 雁鴨池東宮



76. 高仙寺

5. 花葉唐草文系

唐草文이 內向對稱形으로 굴절되고 있는 가운데 反轉되고 있는 枝葉 끝에 花葉이나 花峰을 함께 부착하고 있는 瓦當型(圖 78)으로서 花峰은 대개 側視形으로 意匠되고 있는데 매우 사실적이다. 따라서 統一新羅의 瓦塼文은 대개 8世紀後葉期부터는 추상적인 圖案에서 실제적인 描寫手法으로 점차 전환되게 되는 寫實化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瓦例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B. 蓮花文平瓦當

圓瓦當의 주체적인 文樣으로 장식되고 있는 蓮花文이 平瓦當에 채용되고 있어서 매우 異例의이다. 현재까지 一例(圖 79)가 확인되고 있는 데 瓣肉으로 형성된 8葉單瓣蓮花文이 횡렬로 밀집되어 배치된 瓦當型으로 각 蓮花文은 圓圈으로 구획되어 있고 子房은 平面形으로서 1+5의 蓮子를 시문시키고 있다.

C. 忍冬文平瓦當

忍冬文은 圓瓦當에서는 子葉이나 間瓣으로, 그리고 平瓦當에서는 古式唐草文과 組合되어 忍冬唐草文을 형성시키는 副文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圖 80과 같이 主文으로 장식되고 있어서 매우 주목되고 있다. 花輪圈이 하트形으로 형성된 가운데 좌우로 對生된 忍冬草의 小葉이 비교적 정교하게 시문되고 있는데 7葉을 횡렬로 連接시켜 균형 있게 배치하고 있다.

D. 花葉文平瓦當

統一新羅時代의 平瓦當에 장식되고 있는 文樣은 前述한 唐草文이나 忍冬文 이외에 특수하게 변형된 花葉文을 다양하게 시문시키고 있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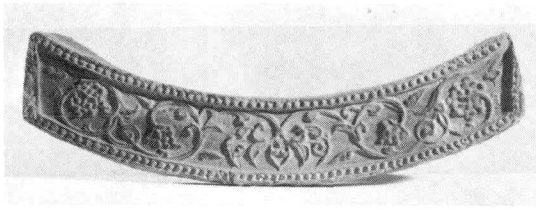
81은 上部의 周緣에 古式唐草文이 偏行形으로 流麗하게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4葉花文이 연속하여 장식되어 있고, 圖 82는 重瓣型의 4葉花文을 半切시켜 上下로 교차시키고 있으며, 圖 83은 周緣部가 線刻으로 대체되면서 牡丹文같은 花形이 밀집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花葉文 平瓦當은 대부분이 統一新羅後葉期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 作例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文樣 자체의 계통도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退化期의 產物이라고 할 수 있다.

E. 瑞鳥文平瓦當

平瓦當에 彫飾되고 있는 瑞鳥文은 前述한 瑞鳥文圓瓦當과 같이 여러 종류의 鳥文으로 구별되고 있는데 雙軀의 鳥形을 對稱시켜 배치한 雙鳥樣式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平瓦當에는 圓瓦當에 彫飾되었던 鳳凰 및 鸞鳥形을 비롯하여 鳥名을 알 수 없는 여러 종류의 小禽文이 특수하게 意匠되고 있는데 모두가 吉祥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써 채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鳳凰形인 圖 84와 85는 中心飾으로 寶相華唐草文을 변형시켜 배치하고 內向하고 있는 雙鳳이 飛翔의 자세로 아름답게 彫飾되고 있는데, 圖 85의 경우는 頸面에까지 內向對稱形인 寶相華唐草文이 시문되어 더욱더 장식화되고 있다. 이러한 鳳凰形은 統一新羅의 瑞鳥文平瓦當 가운데 가장 성행된 瓦當型으로서 統一新羅後葉期까지 계승되고 있다. 그리고 鸞鳥形은 2雙의 鳥形을 並行시킨 것(圖 86)과 3雙의 鳥形을 對向시킨 것(圖 87)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副文으로는 雲文과 變形花文이 장식되어 鳳凰形과 전혀 다른 類型上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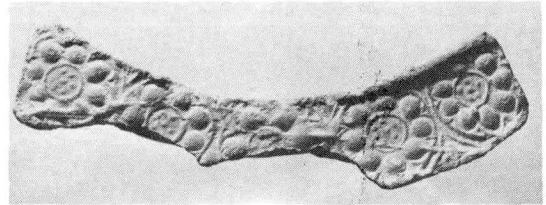
또한 小禽文으로는 그 中心에 變形花文을 배치하고 對稱形인 雙鳥를 장식하고 있는 瓦當型이 대부분인데 그 意匠이 각각 다르다. 圖 88은 瓦當의 中心에 滿開한 花瓣을 크게 배치하고 부리로 瑞花를 물고 있는 雙鳥가 飛翔하고 있는 형상으로 彫飾되고 있는데 그 兩端에는 雲文이 세겨져 있고, 圖 89는 側視形의 變形花文이 上下로 엮여지고 있는 가운데



78. 雁鴨池東宮



77.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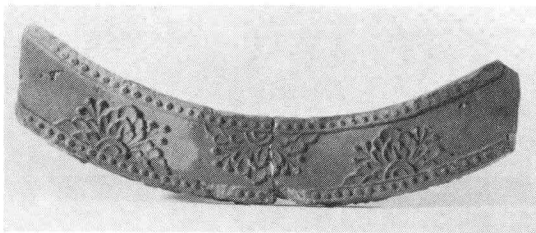
79.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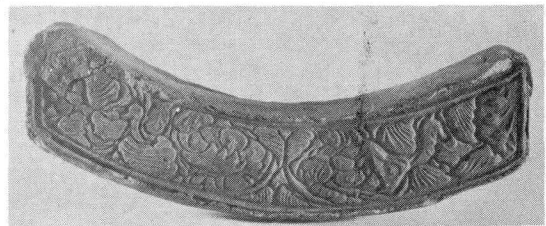
80.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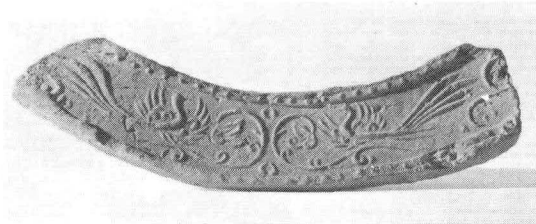
81. 月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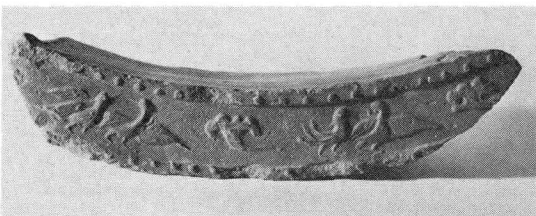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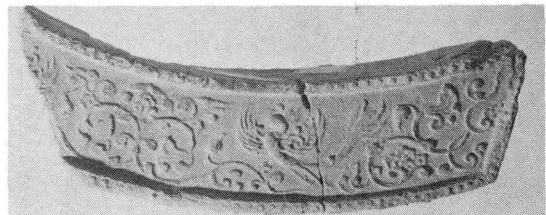
82. 雁鴨池東宮



83. 雁鴨池東宮



84. 雁鴨池東宮



86. 雁鴨池東宮



85. 千軍里廢寺

데 부리로 瑞花를 물고 있는 단순한 鳥形이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圖 90은 특수하게 變形된 寶相華文이 半切된 채 上下部에 엇갈려 시문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小禽을 배치하고 있어서 새로운 類型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麒麟文平瓦當

麒麟은 龍、鳳凰、龜와 함께 四靈으로 숭상되고 있는 瑞獸로서 統一新羅時代의 橢圓瓦當이나 平瓦當에 吉祥文으로써 약간씩 彫飾되고 있다. 圖 91은 瓦當의 중심에 花形寶珠를 설치하고 左右端과 上部의 周緣部에는 雲文이 시문되고 顎面에는 外向對稱形인 唐草文이 장식되고 있는데 兩翼을 부착한 定型화된 麒麟이 특수한 모습으로 飛跳하고 있다.

G、飛天文平瓦當

飛天은 佛을 예찬하고 공양하는 天女로서 上界에 살고 있는 상상의 仙人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樓閣形香爐나 寶花 및 寶雲을 平瓦當의 중심부에 배치하고 飛翔하는 天人으로 意匠되고 있다. 圖 92는 中心飾으로 樓閣形香爐를 배치하고 雲中에서 天衣를 휘날리며 天上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意匠시키고 있으며 圖 93은 寶雲을 배치하고 簫笛을 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彫飾되어 서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H、龍文平瓦當

平瓦當에 시문되고 있는 龍文은 單龍과 雙龍形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單龍의 경우는 그 瓦例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雙龍을 對向시킨 瓦當型이 대부분이다. 圖 94는 單龍이 四肢를 부착하고 瑞氣를 내 뿜으면서 昇天하고 있는 형상을 意匠화시킨 것으로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雲文이 배치되어 있고, 圖 95는 中心에 火焰寶珠를 장식하고 雙龍을 對向시키고 있는데 全身이 雲中에 휩싸여 생동감있게 묘사되고 있다.

이와같이 統一新羅時代의 平瓦當은 樣式的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圖 96과같이 그 중심에 猛禽類의 鳥頭를 배치하고 唐草와같이 변형시킨 雲文이 장식되기도 하고, 瓦當面에 文樣이 전혀 시문되지 않고 있는 無文平瓦當도 제작되고 있어서 다채롭게 변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文樣

統一新羅時代의 文樣塼은 前代에 사용된 蓮花文塼과 唐草文塼의 전통을 계승하고 高句麗와 百濟의 造塼術을 흡수하는 한편, 唐의 外緣的인 자극에 힘입어 7世紀後半期부터 매우 優麗한 塼型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다. 塼의 上面이나 側面 즉 顎面에 寶相華文과 蓮花文、그리고 佛像과 佛塔文 등의 여러가지 文樣이 장식되고 있는데 그 形態와 用度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되고 있으나 다음과같이 塼에 새겨지고 있는 施文單位를 중심으로 이를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寶相華文塼

塼의 上面이나 顎面에 寶相華文이 장식되고 있는 寶相華文塼은 統一新羅직후부터 매우 성행하게 되는데 이의 使用處에 따라 敷塼과 特殊塼으로 다시 세분된다.

1、敷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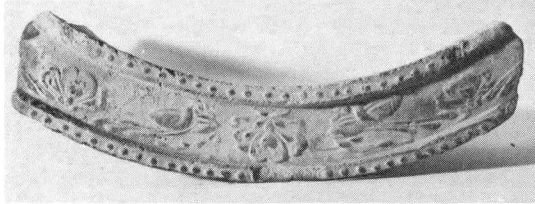
建物の 바닥이나 基壇에 敷設하기 위하여 제작된 寶相華文塼은 統一新羅全期를 통하여 가장 유행된 文樣塼으로서 雙鹿寶相華文塼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圖 97과 97-1은 統一新羅時代에 유행된 전형적인 方形의 敷塼으로 上面의 중앙에는 大形の 寶相華文을 배치하고 각 隅角部에는 寶相華의 分花가, 그리고 顎面에는 유려한 寶相華唐草文과 雙鹿文이 內向對稱形으로 장식되고 있는데, 主文樣인 寶相華文은 內外瓣의 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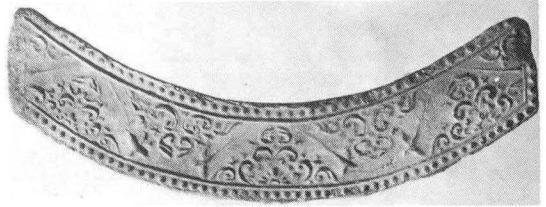
87.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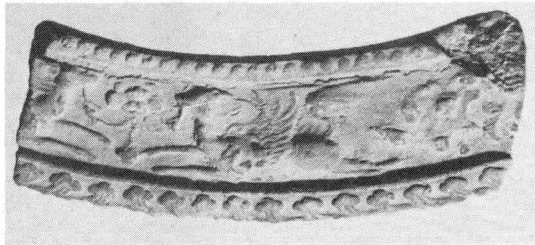
88.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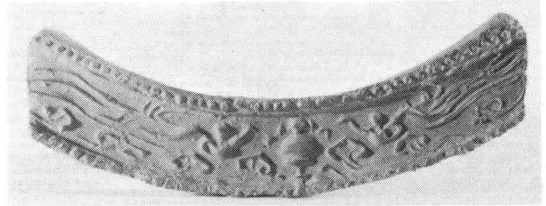
89.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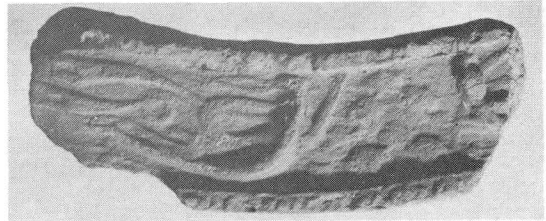
90.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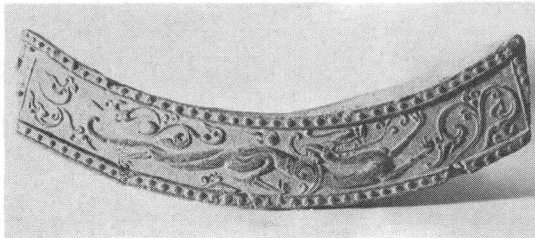
92. 雁鴨池東宮



91. 암막새



93. 高仙寺



94. 암막새



95. 雁鴨池東宮



96. 高仙寺

數가 8葉과 4葉으로 서로 다르게 시문되고 있는 重瓣樣式으로 매우 화려한 意匠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寶相華文塼은 後述하는 圖 98과 같이 後側面에 짧은 段이 설정되고 있는 것과, 생략되고 있는 두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는데 前者는 建物の 基壇의 측에, 後者는 建物內部の 바닥에 각각 敷設되는 塼型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統一新羅 직후에 造營된 雁鴨池의 東宮址에서 「調露二年 漢只伐部〇〇小舍…三月三日 作康」銘이 새겨진 同範塼(插圖 7)이 발견되어 그 정확한 製作年度를 밝힐 수가 있었는데, 圖 97은 西紀 六八〇年 三月 三日에 제작되어 東宮의 創建塼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서 획기적인 資料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적인 寶相華文塼은 圖 98과 같이 그 文樣이 약간씩 변화되어 蓮花文과 서로 複合됨으로써 새로운 類型인 混瓣樣式을 출현시키면서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데, 4枚가 一組로 부설되게 되는 圖 99는 周緣部에 다수의 小形蓮花文을 배치하고 兩側面에 雙鹿寶相華唐草文을 시문시키고 있고, 圖 100은 周緣部에 內向對稱形인 寶相華唐草文을 유려하게 장식하고 그 顎面에는 單龍을 생동감있게 彫飾하고 있으며, 圖 101은 上面의 寶相華文 사이에 雙鶴을 배치시키고 있어서 매우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副文으로 장식된 이러한 單龍이나 雙鶴도 雙鹿과 같이 吉祥을 위한 상징적인 성격을 지닌 意匠으로써 塼에 彫飾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와 같은 方形의 寶相華文塼은 圖 102와 같이 上下의 周緣部에 寶相華文帶를 설정하고 그 顎面에 雙鹿寶相華文을 시문시킨 채 2개의 寶相華文을 塼의 上面에 나란히 배치하고 있는 長方形塼으로 발견되면서 한층 더 장식화되고 있지만, 圖 103과 같이 점차 퇴화되고 顎面도 外向對稱形인 寶相華唐草文으로 대체되게 된다. 그리고 圖 104와 같이 그 층위에 重瓣型的인 寶相華文이 장식되고 있으나 隅角部의 分花와 對角線上으로 연결되는 변형된 꽃줄기가 첨가되면서 전혀 다른 意匠으로 전환되게 된다.

2. 特殊塼

特殊塼은 일반화된 塼型인 方形의 寶相華文塼을全體 또는 그 一部를 몇개의 小形塼으로 분할하여 그 형태를 변형시켜 제작한 異形塼으로서, 대체로 三角塼과 長方塼으로 구별되고 있는데 그 用處가 특수한 部位에 한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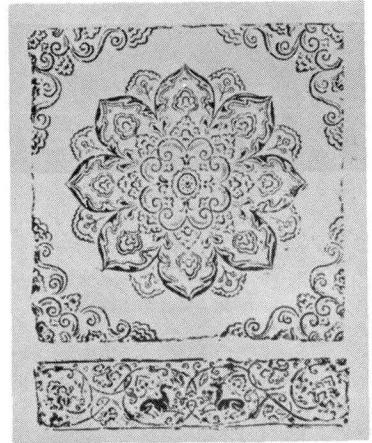
寶相華文三角塼(圖 105)은 方形의 數塼이 서로 엇갈리게 地面에 敷設될 경우의 左右端에 생기는 三角形 모양의 공간을 마음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統一新羅 직후부터 제작되게 되는데 圖 98의 完形塼을 對角線方向으로 4分截하여 제작한 것이다. 그리고 寶相華文長方塼(圖 106)은 前述한 完形塼을 縱方向으로 半分시켜 제작한 것으로써 다시 그 左端을 「」字形으로 짧게 절단시키고 있는 異形塼으로 변형되고 있는데, 그 형태로 보아 특수한 部位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이 외에도 佛壇같은 壇의 築造用으로 추정되고 있는 異形塼(圖 107)이 약간씩 제작되고 있다.

B. 寶相華唐草文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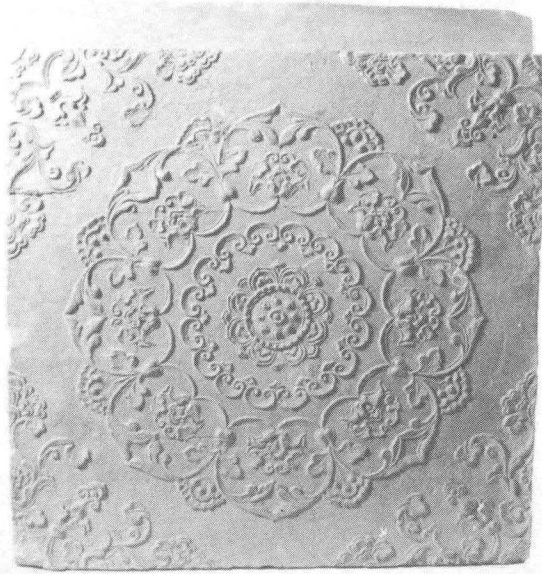
寶相華唐草文이 塼의 上面이나 顎面에 장식되고 있는 文樣塼으로서 그 用處나 形態가 매우 다양하다. 圖 108은 세장한 長方形數塼으로 周緣部에는 連珠文이 배치되어 있고 그 中心에는 內向對稱形인 寶相華唐草文이 장식되고 있는데 橫列로 계속 敷設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그런데 方形인 圖 109와 長方形인 圖 110, 그리고 三角形인 圖 111은 그 形態가 서로 다르나 顎面에는 똑같은 雙鹿寶相華唐草文을 장식하고 있어서 同一時期에 제작된 塼例로써 간주되고 있는데 上面에 文樣이 생략되고 있기때문에 壁이나 壇을 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塼의 上面에 文樣이 시문되지 않고 그 顎面에 「S」자형으로 장식된 寶相華唐草文이 새겨지고 있는 梯形塼(圖 112)이 四天王寺址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木塔의 하단부를 축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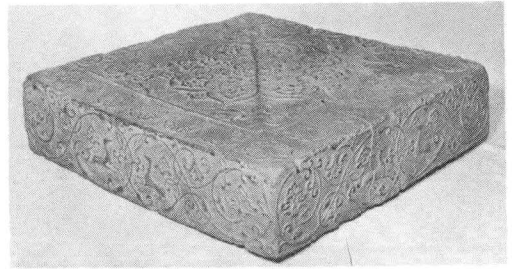
97. 雁鴨池東宮



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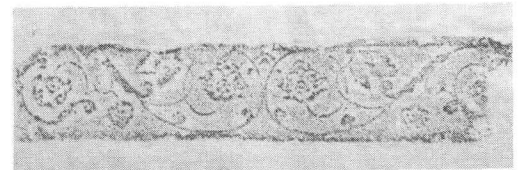
98.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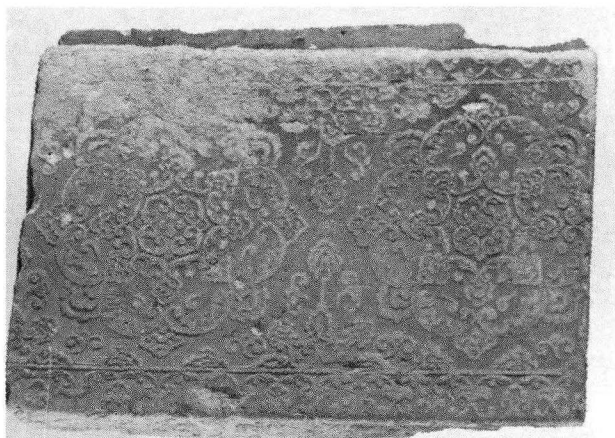
99. 四天王寺



100. 皇龍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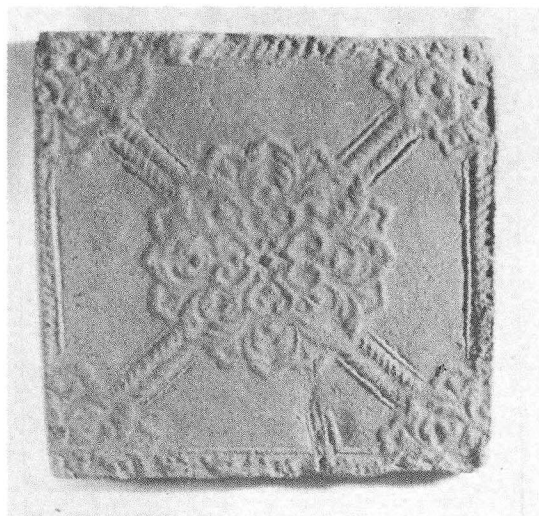
101. 望徳寺



102. 雁鴨池東宮



103. 四天王寺



104. 靈廟寺



105. 雁鴨池東宮



106. 雁鴨池東宮



107. 雁鴨池東宮

위한塔塼으로 제작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塔塼은 그 형태가 서로 다르지만 插圖 8과같이 額面に 장식된 寶相華唐草文속에 鴻雁文을彫飾하게 되는 새로운塼型으로도 변화하게 된다. ⑨

C、蓮花文塼

統一新羅時代의 蓮花文塼은 敷塼과 壁塼、그리고 特殊塼으로 세분되고 있지만 당시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寶相華文塼때문에 크게 유행되지 못한 文樣塼으로써 前代의 전통을 계승하여 그 나름대로 다양하게 변천되고 있다. 敷塼은 다음과같이 많은塼型이 제작되고 있다. 圖 113은 方形塼으로 上面의 중앙에 8葉單瓣蓮花文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4葉花文을 副文으로 장식하고 있으며、圖 114는 長方形塼으로 外瓣에 변형된 珠文이 첨가되고 있는 重瓣型의 蓮花文을 양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長方形塼으로써 그 上面에 2개의 蓮花文을 竝列시키는塼型이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는데 圖 115는 統一新羅後葉期에 유행된 古式單瓣蓮花文이 장식되고 있어서 초기적인 文樣塼으로 간주되고 있고、圖 116은 꽃술子葉이 시문되고 있는 12葉細瓣系蓮花文이 橫列로 배치되고 있어서 점차 新形式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圖 117은 上面에 12葉의 復瓣蓮花文을 좌우에 나란히 배치하고 그 주변은 忍冬文을 副文으로 장식하고 있고 額面에도 外向對稱形인 忍冬唐草文이 意匠되고 있는데 蓮花文塼가운데서 가장 화려한 文樣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蓮花文壁塼은 그 作例가 매우 드문 편으로 圖 118과같이 上面에 文樣이 전혀 시문되지 않는 長方形塼으로써 그 額面에 3개의 5葉復瓣蓮花文이 등간적으로 시문되고 있으나 이미 퇴화되고 있다. 그런데 蓮花文이 장식되고 있는 特殊塼(圖 119)은 長方形塼의 一端을 角形으로 절단하고 그 上面에 半切된 8葉單瓣蓮花文을 시문시키고 있는데 특수한 部位에 사용된 異形塼으로 생각되고 있다.

D 草花文塼

花名을 알 수 없는 草花文이 장식되고 있는 文樣塼은 2例가 확인되고 있다. 圖 120과 121은 方形인 敷塼으로 上面에 花葉文이 특수하게 意匠되고 있는데 隅角部의 分花와 對角線上으로 서로 연결되는 변형된 꽃술帶가 시문되고 있어서 前述한 寶相華文塼(圖 104)과 서로 親緣을 보여주고 있다. 圖 120은 重瓣型의 草花文으로써 子房주위에 꽃술帶가 시문되어 있고、圖 121은 對生된 小葉이 花瓣을 형성시키고 있는데 方槲의 珠文圈으로 上面을 다시 구획시키고 그 외측에 4葉花文을 별도로 장식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草花文塼은 統一新羅後葉期에 제작된 새로운 類型으로 변형된 文樣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鬼面文塼

鬼面文이 장식되고 있는 文樣塼은 一例가 확인되고 있다(圖 122). 上端의 폭이 下端의 폭보다 좁은 重厚한 梯形塼으로써 鬼面이 높게浮彫되고 있는데 매우 강경한 조각솜씨를 보여 주고 있다. 兩耳는 上端보다 높게 치솟고 있으나 破失되어 있고 口部는 半截된 채 齒牙가 날카롭게 새겨지고 있는데 그 下端은 餘白을 일정하게 남겨 놓고 있어서 특수한 장소에 嵌裝시킨 異形塼으로 간주되고 있다.

F、樓閣文塼

塼의 額面에 누각이 배치되고 있는 文樣塼(圖 123)으로써 처마는 反轉되어 있고 용마루의 兩端에는 鸞尾가 조각되고 있는 木造瓦家를雲文위에 장식하고 있는데 樓閣사이에는 중첩된 雲文이 다시 시문되고 있어서 上界에 세워진 空中樓閣이라고 할 수 있다. 樓閣文塼은 보통 後述하는 佛像및 佛塔文塼과 함께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佛塔이나 木塔의 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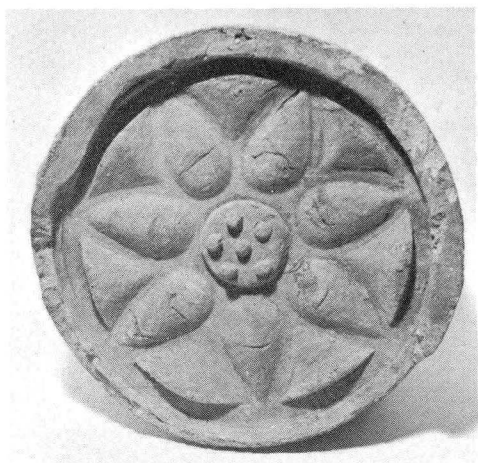


插圖 1. 皇龍寺址出土
單瓣蓮花文圓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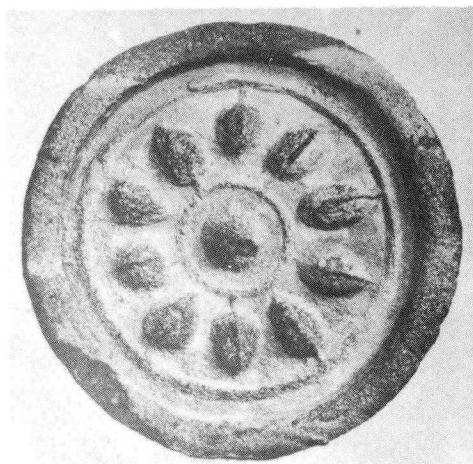


插圖 2. 平壤出土
單瓣蓮花文圓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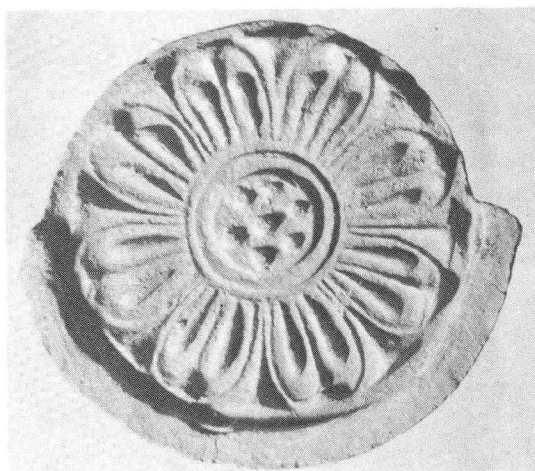


插圖 3. 靈廟寺址出土
複瓣蓮花文圓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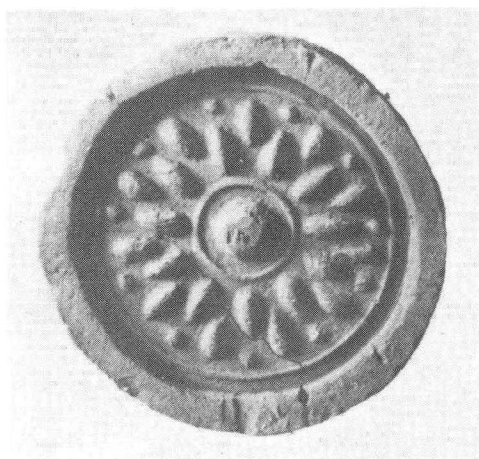


插圖 4. 平壤出土
重瓣蓮花文圓瓦當



插圖 5. 靈廟寺址出土
人面文圓瓦當



插圖 6. 阿且山城出土
花葉唐草文端平瓦



插圖 7. 雁鴨池東宮址出土
「調露二年…」銘 寶相華文磚



插圖 8. 農所面中山里出土
寶相華文塔磚拓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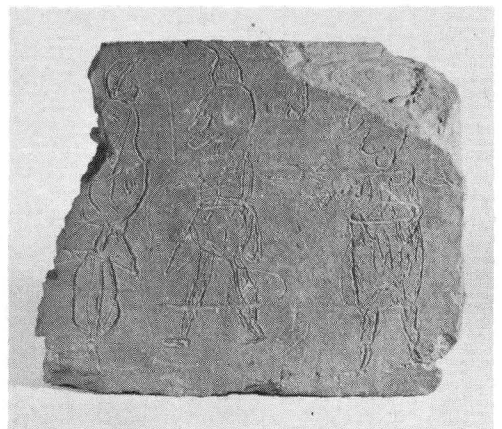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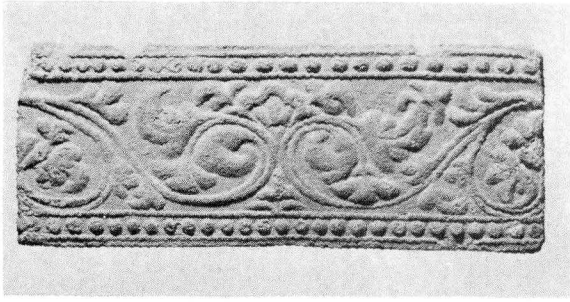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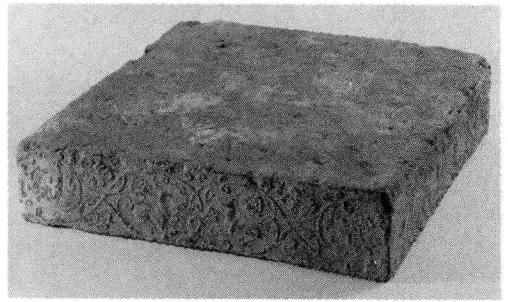


插圖 9. 皇龍寺址出土 人物像文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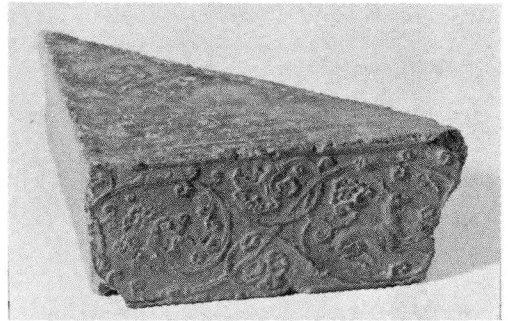
108. 四天王寺



109. 雁鴨池東宮



110. 雁鴨池東宮



111.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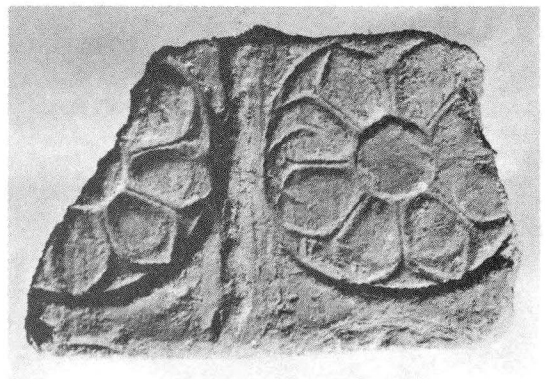
112. 四天王寺



113. 雁鴨池東宮



114. 普門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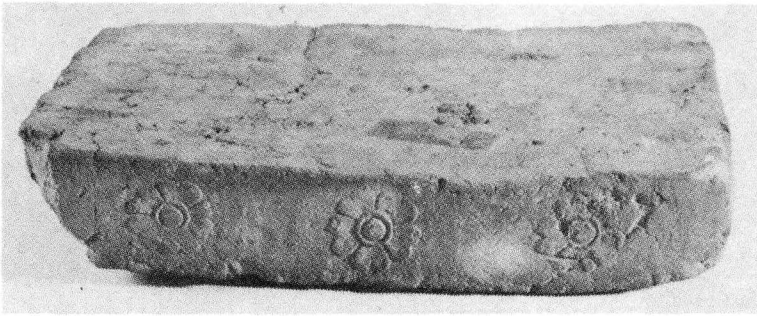
115. 蓮華紋磚



116. 皇龍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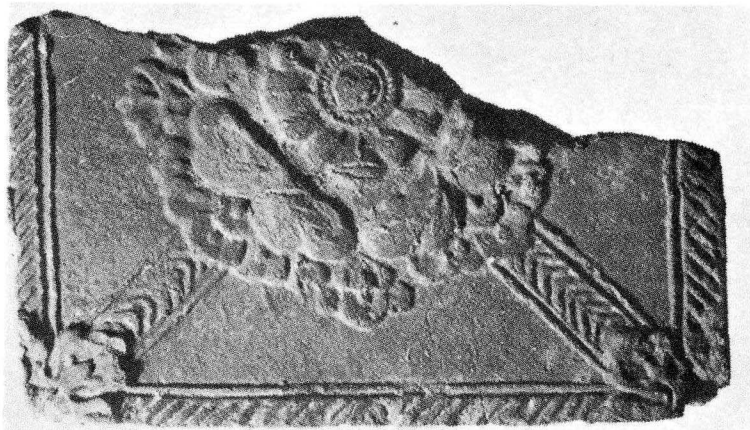
117. 磚



118. 雁鴨池東宮



119. 磚



120. 四天王寺

面을 축조하기 위하여 제작된 塔塼用으로 생각된다.

G、佛像 및 佛塔文塼

塼의 額面에 佛像이나 佛塔文이 장식되고 있는 文樣塼으로 佛像이 忍冬文과 함께 연속적으로 배치된 것(圖 124)과 佛像과 佛塔을 서로 교차시킨 것(圖 125) 등이 있는데 佛塔이나 木塔의 壁面을 축조하기 위한 塔塼으로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文樣塼은 당시에 유행한 千佛千塔의 佛敎思想에서 연유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대개 佛像은 座像으로 佛塔은 三層塔으로 의장되고 있다.

이와같이 統一新羅時代의 文樣塼은 그 종류와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佛壇이나 寺院의 壁面을 장식하기 위하여 제작된 塼佛이 있고, 木塔의 下端部에 嵌裝한 緣袖四天王像塼이 四天王寺址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插圖 9와같이 無文塼의 上面에 人物像을 특수하게 새기고 있는 塼例도 확인되고 있어서 建築部材로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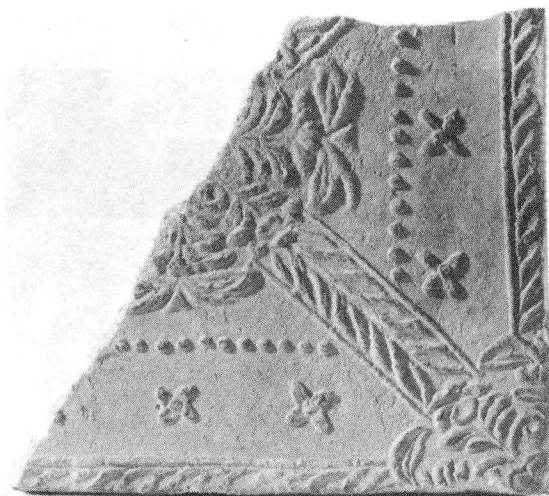
VI、結語

統一新羅時代의 瓦塼은 前述한 바와같이 蓮花文과 寶相華文、그리고 唐草文과 禽獸文 등이 다채롭게 채용되어 製作時期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고 있는데, 그 種類도 前代에 사용된 기본적인 瓦塼類이외에 平瓦當과 楕圓瓦當, 그리고 寶相華文塼과 裝飾篋 特殊瓦塼들이 새로 개발되어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圓瓦當은 前代에 성행한 蓮花文이 주체적인 施文單位로 계승되고 있으나 統一新羅後에 高句麗와 百濟의 영향을 다시 받고 唐의 外緣의 인자극에 힘입어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文化的複合現象에 따라, 單純素朴한 三國期의 蓮瓣의 모습에서 單瓣、複瓣、重瓣 등의 樣式的인 변천을 보이면서, 忍冬文、꽃술, 瓣形 등의 瓣內裝飾이 가미되고, 周緣部에 珠

文이나 花文 등의 帶文이 시문되게 되는 新形式의 瓦當型으로 전환되게 됨으로써 화려하고 섬세한 裝飾의인 特性을 보여 주고 있는데, 瓦當面에 內外瓣을 중첩시키고 있는 重瓣樣式이 統一新羅時代의 독자적인 瓦當型으로 대표되고 있다. 또한 寶相華文이 주요한 施文單位로 채용되어 전통적인 蓮花文一色의 瓦當文을 크게 변형시키고 있는데 吉祥과 辟邪를 위한 상징적인 意味로써 獅子、鬼面、迦陵頻伽、鳳凰 등의 禽獸文이 彫飾되어 새로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平瓦當은 統一新羅後부터 寶相華文塼과 동시에 제작된 것으로서 狹幅한 장방형의 空間性때문에 처음부터 덩굴풀을 意味化시킨 唐草文이 주체적인 文樣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樣式上 內向 및 外向의 對稱形과 偏行形으로 兩分되고 있다. 그런데 唐草文의 枝葉끝이 忍冬文과 寶相華文、그리고 葡萄文 등과 서로 組合되어 새로운 類型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圓瓦當에 彫飾되고 있는 禽獸文은 물론 龍、麒麟、飛天 등의 瑞祥의인 吉祥文樣이 다시 장식되게 됨으로써 다양하게 변천되고 있다. 그리고 統一新羅時代의 文樣塼은 雙鹿寶相華文塼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方形의 數塼으로 上面의 중앙에는 8葉寶相華文을, 隅角部에는 이의 分花를, 그리고 額面에는 鹿文과 寶相華唐草文을 對稱으로 장식하고 있는 定型化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塼型은 점차 蓮花文과 組合되어 混瓣形을 형성시키고 있고 2葉의 寶相華文을 그 上面에 竝列시키는 새로운 類型으로 발전되면서 더욱 더 장식화되고 있다. 또한 蓮花文塼이 약간씩 제작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고 建物の 壁面과 塔塔 또는 木塔을 축조하기 위한 壁塼과 塔塼이 그 나름대로 독특하게 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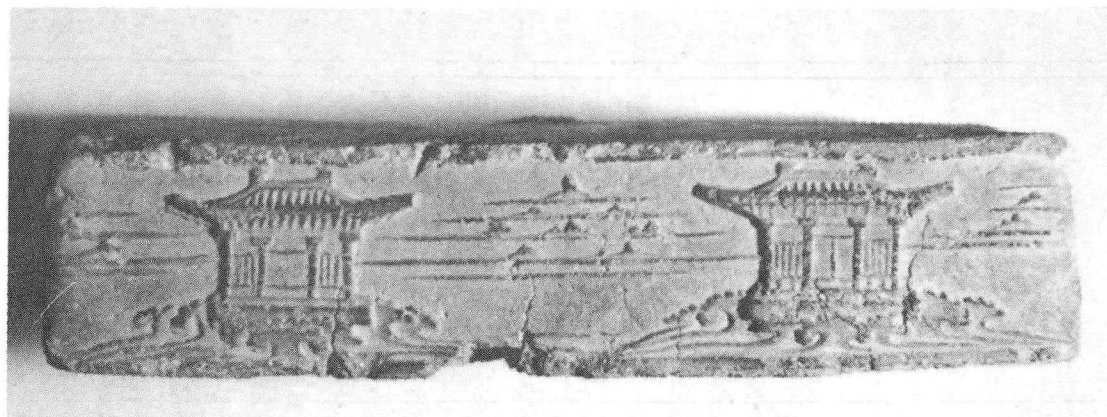
이상과같이 統一新羅時代의 瓦塼은 그 形態와 文樣, 그리고 使用處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모두가 建物を 짓기 이전에 그 用處를 미리 고려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景觀과 治粧을 위한 裝飾 및 特殊瓦塼들을 통하여 木造瓦家의 새로운 建築術이 統一新羅時代에 유행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瓦塼은 國家的인 造營事業의 일환으로서 많은 수량이 燔造되고 있는데, 그 施文內容은 단순한 美的對象으로써



121. 雁鴨池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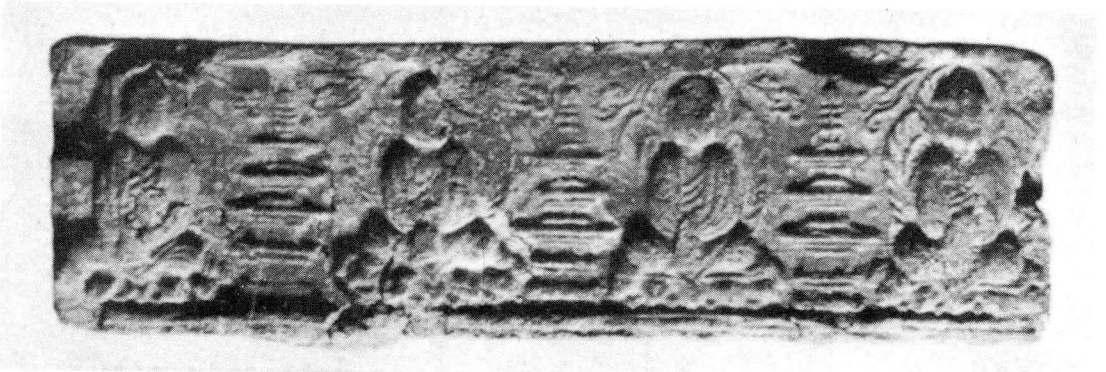
122 鬼面



123 家形紋



124. 仁旺里廢寺



125

장식된 것이 아니라 평안과 번영을 소망하는 新羅人의 精神的인 意志를 반영한 것으로써, 당시의 工匠人이 苦心하여 創案한 독자적인 意匠이라고 할 수 있다.

〔註〕

- ①, 瓣肉이 縱方向으로 높게 浮彫된 상태에서 兩邊의 불륜을 금격히 삭감시켜 斜面을 형성하게 되는 銳角현상으로 별도로 施文된 稜線과 구별되고 있는 특수한 裝飾技法이다.
- ②, 『高句麗時代之遺蹟』, 上冊圖版, 朝鮮總督府 昭和四年 圖八〇, 四九, 二三〇 등은 高仙寺址出土品(圖 4)과 비교해 볼 때 서로 親緣을 갖고 있다.
- ③, 金誠龜 「雁鴨池出土 古式瓦當의 形式的 考察」 『美術資料』 第二九號 國立中央博物館 一九八一年 p. 23
- ④, 金誠龜 前掲書 一九八一年 p. 26
- ⑤, 前掲書 朝鮮總督府 昭和四年 圖二二六, 二二七, 二五三 등은 蓮瓣이 엇갈리거나 엇혀져 重疊되고 있는 高句麗의 重瓣樣式으로 統一新羅時代에 유행되고 있는 重瓣薄花文瓦當의 先例가 되고 있다.
- ⑥, ①插圖 6은 赤褐色을 띠고 있는 高句麗의 端平瓦로 추정되고 있는데 先端을 瓦刀로 整面한 후 偏行形의 花葉唐草文을 陰刻시키고 있다.
- ⑦, 金誠龜 「多慶瓦窰址出土 新羅瓦磚小考」 『美術資料』 第三三號 國立中央博物館 一九八三年 p. 17
- ⑧, 金誠龜 前掲書 一九八三年 p. 7
- ⑨, 濱田耕作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 昭和九年 圖版第七, 圖一〇四〇 所收. 이러한 鴻雁文은 圖一七二의 寶相華·蓮花文圖瓦當과 圖六六七과 六六八의 龍文平瓦當의 頸文으로 각각 시문되고 있어서 폭넓게 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⑩, 趙由典 「皇龍寺址出土 特殊瓦と磚」 『月刊韓國文化』 自由社 一九八〇年一月號 p. 18 所收.